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偏頗한外地米統制案 即時撤廢하라

一

지난 二十五日 農相官邸에서 開催된 米穀對策調査會特別委員會에서 決定되었다는 米穀對策案要綱은 이미 本報에 報道한바이니와 今日 總督府當局의 說明에 依하면 그要綱이라는것은 事實 同特別委員會에서 決定된것도 아니오 農林省에서 同省案에다 同委員會의 意見을 參酌하야 制定한것인바 同委員長 靑木氏의 反對로 十日間 同委員會를 休會하고 新案을 作成키로 하얏다한다。

靑木氏의 同案反對理由는 在滿機構問題로써 關東廳官吏의 反對를 맛나 內閣의 危機까지 맛낫든 岡田內閣으로 今次 다시 朝鮮에不利한 米穀統制案을 制定하야 朝鮮在住人의 反對를 맛나면 內閣은 더욱 危機에 瀕할지니 그야말로 日本內地와朝鮮의 利害를 折衝한 中間案을 制定하자함에 잇다하며 또 이米穀對策案은 다시 어떤 紛糾를이르켜 어떤 結果를 이룰지 모르겟스므로 臨時議會에도 提出치 안흐리라한다。靑木氏가 어떤 折衝案을 提出할지는 今後一旬을지나지안흐면 알수업스나 同氏가 右對策案을 偏頗타認하것은 公平한 處斷이다。

二

同案의 第三은 外地米의統制問題를 取扱한것인데 一項에 外地米 即 朝鮮米及臺灣米의 移入은 原則으로 自由의것을 規定하얏스나 同項但書에는 日本內地의 第一回收穫豫想高 十一月一日의米穀現在高、朝鮮及臺灣으로부터의 米穀輸入高及過去의 消費狀況을參酌한 米穀消費豫想高를基準으로서米穀의 需給推算을 行하야 當該米穀年度末의 民間持越高가 一定數量을 超過할듯한 境遇에는 政府는臺灣米의、朝鮮米又는 滿洲米의 買入을할것이라하얏다。原則上으로 移入自由를 認하고 事實上으로는 政府가 買入하므로써 移入을 制限하라하는 法文을 制定한것이얼마나 巧妙하게 外地米를 排斥하려하는 心事인가。이것은 비록 但書이나 事實上 効力을發生할 文章으로서 露骨的으로 外地米의 移入을 統制한다는것보다 몃層의 惡意가潛在하얏다。

第二項에 第一項에 依하야 買入할 境遇에는 朝鮮、臺灣의中南米穀生産費 其他經濟事情을 參酌한다는것은 必要업는老婆心이며 第三項의 一에依하야 政府가 買入하는 米穀年度는 朝鮮 又는 臺灣으로부터 日本內地에의 米穀移入은 모다 政府에서 此等行한다 하는것은事實上 年年히 政府가朝鮮米等을 統制하겟다하는것이다。

三

吾人은 朝鮮米統制問題로서 本欄에 그非한바를 論하기 한두번이 아니다。가튼 領域안에서 物貨의 來往을 制限하며、同一한 價値의 물건을 低價로 賣却하게하는것이 이미 差別待遇거니와 日本內地의 食糧問題를 解決코저 朝鮮에 米增殖計畫을 實行하얏기때문에 생긴 産米가 過剩되어 移出이 旺盛해젓는데 不拘하고 이번에는 不必要하니 移入을 制限한다는것은 너무나 한甘呑苦吐의 處置다。하물며 朝鮮米가 日本內地에 移出되므로써 朝鮮農民이 日本內地의 工業品을 買用할수가 잇고、따라 日本內地의 工業이 旺盛해지는것을 생각할때에는 利害關係로 보드래도 統制를 中止할것이 아닌가。그러므로 政府는 이純理論으로나 事實上 利害關係로나 不然한 朝鮮米移入制限策은 一日이라도 速히 撤廢하고 自由로운 貿易을 피할것이다。

米國態度如何로 豫備會談決裂難免
日英主張合致漸次表面化로 米、共同戰線을憂慮

【電通東京電話】倫敦軍縮豫備會談은 드듸여 來週부터 第二段에 들어 日本側의提案을 中心으로 英米側으로부터 具體的 質疑가 提起될것으로보아는데 日本側의 總噸數制限主義를根幹으로한 新軍縮案의 提議에對하야 今日까지 英米側은 表面上 同情的理解를 表示하고 잇스나 新提案에서 日本側이 英米의 海軍勢力을 如何한程度로 制限코저하는가 그具體的數字를가장念慮하고잇다 特히 米國側은

一、日本海軍이 對米勢力의增大를必要케된 政治的理由如何

一、日本海軍의 華府海軍條約廢棄方針은 英國海軍으로하여곰 米國海軍에 對한日英共同戰線을 펴게되지나안흘가

의二點을 猜疑하야日本側에對하여는 憫慮에 갓가운反對論으로서對抗코저하는 意向을表하고잇다 그럼으로今後의 日英主張의共通點이 漸次表面化됨에따러或은 急速히最悪의境遇가現出되지나 안홀가 憂慮된다 英國은이에對하야 日米의中間에서豫備會談의 失敗를防止코저온갓調停策을 講究할것으로 豫備會談의 成否如何는專혀今後米國側의 態度如何에잇다고할수잇다

헨더슨議長 데米代表와會見

【電通倫敦二十六日發】國際聯盟一般軍縮會議議長 헨더슨氏는 二十六日午後五時크라릿지스호텔에 米國代表데비스氏를 訪問하얏는데 右는 十一月開催될豫定의 一般軍縮會議幹部會開會의 希望이 極히적은旨의 通告를하기爲한것이라고信하야 이에對하야 데비스代表는 海軍會議의 前途는極히 暗澹한바가잇다는旨의 說明을하얏다고 解釋된다 그리고 消息通은 右헨더슨、데비스兩氏의會見을 指稱하야 『相互軍縮慰安會의設立會』라고 의흥할것이라고 揶揄하고 잇다

日本軍縮案에對한 米國側의見解

【電通華盛頓廿七日發】華盛頓最高權威側에서는 倫敦에서의 情報에依하야 日本의軍縮案에對하야 强硬히反對를 主唱하는一方 이는 米國에對하야 脅威的姿勢를要求하는 暴案이라고 如左한見解를 述하고잇다

一、日本은 아직 그提案이 共通保有量의具體的數字를 提示치안헛스나 이미 陳述된바에依하면 이는日本의現有勢力을 最低位의것으로 할라는것일것이다

一、右提案은 關係國에 各其海軍主力의廢止를 要求하는 것이나 그範圍는 日本에는 極히 적게하고 英、米에는 만케할것이다

一、日本은 英、米의要請에依하야 그廢止率을 減한다하더라도 日本의現有勢力을그 最高限度로 할터로 딸아三國現有力을 五·五·三이라하면日本은二·二·二乃至三·三·三으로도 決定하려는것으로最高限의目標는 三·三·三에서 折衝할것이다

滿洲國政府의措置는 九個國條約에違反
英國權益에影響을波及한다고 뉴―스크로니클紙揶揄

【倫敦二十七日發聯合】英國의言論界는滿洲國의 機會均等原則問題를重視하야 倫敦各紙는二十七日紙上에서 問題를相當히크게報道하야 滿洲國政府今回의處置는 九個國條約違反이라고論하고잇다 特히뉴―스·크로니클紙는 一面에『滿洲國에잇서서의日本의獨擅的行動』이라는큰題目을揭載하야 滿洲國政府今回의處置는 英國의權益에重大한影響을波及함을力說하고 다시如左히揶揄的社說을 揭載하엿다

日本新聞界는日本은極東에서의唯一한 安定力으로서極東의門戶開放은日本의힘에依하야만確保된다고主張하야이런

比島와日本海軍 佛伊의特殊性
海軍力에對한將來할鬪爭
데일리텔레그래프海軍記者 H、C、바이워터 (5)

日本의處地

日本의海軍政策은 曖昧한點이업시 明瞭하다 日本海軍의目的은 彼國의 軍部經濟에在한 戰略的地位를强化하야서 武力에依한 外國의容喙를 技術上으로 不可能하게맨드는데잇스니이것이업섯든들極東의現在情勢는 잇슬수업섯슬것이다。日本은外國의領海의軍艦을 配置치못하엿고 委任統治地 南洋群島以外에는 海外作戰根據地를가지지못하엿스니 彼國의全海軍力은 自國領海에集中되여 그地理的有利에加하야 第一流의 艦艇으로서 精銳하게 配置되여 잇슴으로 彼國의防海力은 難攻不落이라할것이다。過去의經驗으로보아彼國은彼國이 必要하다고생각하는一噸、一銃의減縮도 聽從하지안흘것만한彈力을가지고 現在特히 滿洲事變後 그國民的輿論을 背景으로한軍部의强硬政策은 華府條約에依한 五·五·三比率과 倫敦條約에依한十·十·七比率을當然히改訂할것으로 强調되여잇다 이리하야 彼國은 現在 『原則上의平等』=Parity in Principles=을 國策으로내걸고잇다。

◇

日本은 一九三五年을深刻한意味에서解釋한다。事實上 同年에는 海軍軍縮會議가열니게되고同時에日本의聯盟脫退가確定된다。그러나이두가지가 日本에對하야悲劇的結果를齎來할것갓지안타 日本은 彼國의國防에極히重要하다고생각하는 南洋群島가國際聯盟脫退確定에따라 國際聯盟으로부터 委任統治權返附를 要求當할것을 豫定하고잇는 모양이나 聯盟은形式上으로도 이問題를提起하기나할것이오 日本이 이에應하리라고는아모도想像치못하는바이다 海軍軍縮會議에잇서서는 日本의『均勢』要求가 英米에依하야 疑心업시 拒否될것도 틀님업슬것이다 勿論어느程度의改訂妥協은 可能한일이지마는 그러나 彼國은大海軍豫算과아울너 어데까지든지 을貫徹할決意를 表明하기에 汲汲하고잇스니 이것은米國의現在大建艦案發表와 아울러 來會議에在한 言權을有力케하려는 푸레스·켐페인(宣傳)의 多分이含有한것이라고볼것이다。

◇

米國이 比律賓獨立法案通過에依하야 比島를放棄하고 그海軍이 布哇로撤歸하게되면太平洋上에在한 日本의假想的은消滅하게되다 兩國의海戰可能性은 그遼隔된海洋에依하야 實際上不可能케되기때문이다 이러한 事態의推移는 日本이 現在比率以上의 海軍을 要求하는 根據를 弱하게할것은 明白한일이니 日本의西太平洋에잇서서의制海權은 不動의姿勢가된다。日本의自國領海支配가絕對的이라는것은 이미各國의戰略을論하는者의 一致한結論이다。日本이現比率以上의大海軍이 必要하다는데는 『마닐라』에在한米國艦隊의存在가 便宜한口實이되여온것이다。

佛伊의處地

이兩國은 모다다음海軍會議에熱잇는參加者가 될것갓지안타 此兩國은彼等의國家가 가장用力하는 潛水艦과輕巡洋艦製作을 制限當할것을 알기때문이다、이兩國은倫敦會議時에도 그噸數減縮을斷然拒否하얏든것인데、現在그態度를變更할 何等의兆徵도 보히지아흘뿐아니라 兩國은 可恐할性能을가진 潛水艦隊建設에 目下熱中하고잇다。現下佛國所有의 潛水艦은百九隻、伊國은六十五隻인데大部分은 最新科學의粹를 다한것이다。이事實은 英國이 倫敦條約의 延長을 到底히할수업다는問題事情이된다。佛伊兩國의 海軍政策이 最近더욱 積極化하게된 原因은佛國은 彼國의 經濟的生命線이며 陸軍機材의貯水池라고도할 그屬領北部亞弗利加와의交通을 保護하기爲하야는 地中海의海上女王이되여야겟다는必要外、特히獨逸海軍의『도이취란드』에서 生하는恐怖感이 그海軍擴充慾을 刺戟하야 毎隻에三千萬磅이란 世界建艦界未曾有의巨費로二萬六千五百噸餘의 戰鬪艦二隻을建造함에이르럿다。이것은주로 獨逸抑制를目標로한것이지마는自然이것은 伊太利를刺戟하야、同國으로하여곰、이에지지안는二巨艦의建造를着手케하엿다、이와가티 오늘날의國際關係는、建艦과建艦의行進의目標를一定치안케하면서도 競爭식히고잇는 것이다

機會均等問題로 米政府態度愼重
日本의新軍縮方案은受諾不能 米國務次官態度表示

【華盛頓二十六日發聯合】海軍豫備會談의經過에對하야 米國政府는 深甚한關心을表示하야 倫敦의情報를注意하고잇는一方 滿洲國의機會均等問題에對하야도 推移를注視하고잇는模樣이다 何如튼日本政府의軍縮新方式案은 受諾할수업다는것이 米國政府의態度이다 滿洲國의 機會均等問題에對하여는 어데까지 東京駐箚그루―大使를通하야 自國産業界의 權益을 確保할方針이라고解釋된다 但 國務省當局은 자못緊張한態度를表示하야 國務次官補필립스氏도 二十六日記者團과의 會見에서 右의態度에對하야 一切言明을避하엿다

英國重大視 石油問題를

【電通倫敦二十六日發】英國政府가非公式發表로서 滿洲에在한 石油會社의設立及滿洲石油의專賣實施計畫에關하야 日本政府及滿洲政府에對하야所見을開陳한點에關하야 英國官邊과密接한 消息通은二十六日左와如히言明하얏다

一、英政府가 日本政府及滿洲國政府에 提議한 石油問題覺書에關하야는 아즉아모쪽에서도充分滿足할回答을 接受하지안헛다

一、右覺書提出에際하야 英國政府는米國政府及和蘭政府와 意見交換을하얏는데提議는各國別個의行動으로 共同抗議라할性質은아니다

一、英政府는滿洲國政府가門戶開放主義를遵守할것을 一九三二年三月一日의 獨立宣言書及同年三月도부터 四月中에 四十九個國政府에對하야 發送한通告中에 明示햇슬뿐아니라 日本政府外交官等도 自後六回의機會에 互하야 滿洲國의門戶開放을 確認한것을 想起한다

一、英政府는 滿洲國에서計畫中인石油事業計畫에 對하야極히重大한關心을有한다

理由로 海軍政策上 自由行動을 要求한다고 强調하나 滿洲國今回의 措置는全然右 矛盾에關하여는 英國의滿洲國承認給에나說明을 求한바 觀察에 看過되지안는가 이 가업슬것이다

主稅局增稅案成立
一億三千萬圓增收企圖 藏相裁斷으로決定

【東京電話聯合】增稅에對한 藤井藏相의意向은全然未定이고 豫算省議의 結果隨行與否를비로소決定하리라고 보이고잇는바 主稅局에서는 벌서부터 調査硏究한結果 겨우이지음 成案이되어 藤井藏相의 指圖에依하야서는何時든지이에應할準備를整備하고잇다 그리고主稅局原案은 大體如左한二案으로되엇것이라고傳한다

第一案=非常時利得稅(新稅創設)=非常時利得稅는法人及個人에區別하야 賦課하야法人의境遇는課稅對照가될法人의 其本金 最低限度를定하고利益金의百分의十內外를徵收함 個人의境遇에잇서서는 過去數個年의實績에徵한所得增加額을 決定하고 이에어느程度의課稅를할 그리고 課稅方法으로서는 軍需의性質上例外는잇하나 特히軍需工業爲替管理業等所謂 멘프레事業으로도함 右에依하야 年額約三千萬圓의 增收를期함

第二案=個人所得稅、相續稅、資本利子稅等의 稅率을引上하고 이에依하야 一億圓內外의增收를期함

米穀賣渡數量 農林省發表

【電通東京電話】農林省發表 日本內地米賣渡數量은 如左
豫定數量 七五七、七二六石八
決定數量 三八五、五一四石四

軍部、增稅를强調나 藏相의態度는未定
大藏省省議가注目

【東京電話聯合】來年度豫算은 如何히大藏省이大斧鉞을加하더라도 六億圓以上의歲入缺陷이잇다 이를公債만으로補塡할가또는增稅에依하야 이缺陷의一部를補塡할가에關하여는 經濟界에波及하는影響이 큼으로 各方面의意見은 贊否兩論에分立되는데 現下의經濟界로서巨額의公債를 消化할수잇는가업는가하는問題도잇슴으로 大藏事務當局에서도 그贊否의意見은아직決定치안하고 二十七日부터의省議에서도 審議키로되엿는데 藤井藏相으로서는 아직 言明을避하고 決定키로되엿다 軍部에서는 國民에對하야 非常時를 意識식히기爲하야 頗少額의增稅를하자는 意見도잇고 特히海軍部內에서는 一九三五六年의 非常時에臨하야來年度豫算은增稅에依하야 求하라는强硬意見도잇는터로 增稅하느냐못하느냐는 藏相이如何히裁斷할가 注目된다

豫算查定終了 大藏省議開會
國防及匡救關係豫算은 政治的으로解決

【東京電話聯合】未曾有의編成難인來年度豫算에 對한大藏省主計局의 查定도終了되엿슴으로 二十七日午後一時半부터 드듸여 來年度豫算에 對한大藏省의 態度를決定키爲하야大藏省議가 永田町藏相官邸에서開會되엿다 藤井藏相津島次官以下各局長主計局各課長出席下에 各歲入豫算의審議에들어가 中島主稅局長으로부터 昭和十年度稅收에 關하야詳細한說明이잇고 官業其他豫算에關하야 各各關係官으로부터 報告가잇슨後審議에들어갓는데 歲入豫算에關하야는 二十七日中에는全部審議終了가 至難함으로 二十八日에는日曜日임에도不拘코省議를續行하야 同日中에 歲入關係審議를맛추고 二十九日부터 陸軍豫算을審議하야 三十日이나 來月一日까지에 協議를맛출터이다 가장重要性을띈國防豫算과 匡救事業과의關係豫算과가튼것은 最後의決定을하지안코藤井藏相의 政治的解決에 맥기기로 될뜻하다 省議가決定되면 三十一日부터來月一日의省議에서 增稅에對한大藏省의 方針을 決定할것으로 보이여 省議의 前途는 여러가지意味에서 各方面으로부터 注視된다

瓦房店事件 圓滿解決

【大連二十七日發聯合】機構問題紛糾의導因으로서 當面의 現地情勢打開의 有力한楔이라고觀測되든憲兵對關東廳警察官의瓦房店事件은 이지음營口憲兵隊에監禁取調中의 趙外三十餘名의滿人被告全部의 取調가終了되엿슴으로 各其釋放되야 이에事件은 圓滿解決을보게되엿는데 그結果는直接間接으로 現地情勢好轉에微妙한 效果를來하고잇다

警視總監及地方長官異動
閣議決定에서發表

【電通東京電話】警視總監及地方長官의移動은 今日閣議에서 旣報한바와가티 決定하야 如左히發令하엿다

任警視總監 從四位勳四等 福岡縣知事 小栗一雄
依願免本官 警視總監 藤沼庄平
福島縣知事 任福岡縣知事 畑山四男美
滋賀縣知事 任福島縣知事 伊藤武彦
警視廳官房主事 任滋賀縣知事 村地信夫
警視廳特高課長 任警視廳官房主事 阿部源基

江西省의共産軍 湖南貴州로追擊
共軍部隊聯絡完成

【電通廣東二十七日發】江西南部의共軍은 連日猛烈한夜襲을繼續하야 安遠、信豐을相次로占領하고 昨日은廣東省北境鳥逕로迫하엿스나 此에對하야 廣東兩路軍은 兵力의散耗를考慮하고防禦를取하엿슴으로 遂次厥退되여 第一線을南雄、大庚方面으로 後退케하야겨우共軍의省內侵入을阻止하엿다 共軍의主力은 乘勢長驅하야最初의豫定대로 이미湖南、貴州로向하야 連繫을加하고잇슴으로 早晩南圍를脫出한 다른共軍과의連絡이完成될形勢이다

中國蔣公使 外相訪問

【電通東京電話】駐日中國公使蔣作賓氏는 二十七日午後二時半外務省에 廣田外相을訪問하고 懸案中인日中及滿中通郵諸問題에關하야種種協議하엿다

國策審議會 設置方針을決定
◇三十日閣議에서

【東京電話聯合】床次、町田、後藤三相으로부터國策審議會設置의進言을바든 岡田首相은目下吉田書記官長으로하여곰具體案을作成식히고잇는데 來三十日閣議에서『三相으로부터 進言된 國策審議會設置案』이잇섯슴으로 이를設置하야國策을樹立하고그遂行에 邁進하겟다는旨를 報告하고國策審議會設置方針을決定키로되엿다

首相과意見交換 町田、床次兩相

【電通東京電話】二十六日正午岡田首相의 海軍將星招待午餐會散會後町田商相、床次遞相은首相官邸에남어 午後一時半부터臨時議會開會及國策審議會設置問題에關하야 重要會議를行하엿다 目下政界의注目의焦點이되여잇는 政民連繫問題에關하여相當히意見도 을交換한模樣이다

大戰休戰記念日 國際交換放送

【電通東京電話】來十一月十一日은 世界大戰休戰十五週年紀念日에該當함으로 大戰의慘禍를回想하고 世界平和의促進에資키爲하야 世界各國의知名政治家가 라듸오를通하야國際交換放送을行키로되야 日本에서는 德川家達公이 마이크를通하야 世界에放送키로되엿다

全關東廳員 辭表撤回를決定

【旅順廿七日發聯合至急報】辭表를提出하고 끗까지抗爭을決議하고잇든 關東廳員은廿七日夜大場警務 日下內務 中村財務三局長以下 全部辭表를撤回하고 新機構에 服從키로確定하엿다

追加豫算携帶코 林財務局長渡東

林財務局長은 九年度追加豫算의計數整理를끗마치고 기대리여廿七日午後十一時三十分發列車로 渡東하얏는데 右追加豫算의內容은大略如左하다

一、洛東江改修費追加額은 九百萬圓이나 下流一川案工事의殘工費百六十一萬五千圓을 비롯하야 旣定豫算에編入되여잇는工費를控除한 約五百萬圓(上流部水組提供의補償工費)을來臨時議會에 提出키로決定하엿다

一、이外에 水害罹災民의 西北鮮方面의救濟 及 災害復舊費及凶作地方에作한 救濟事業費等도 臨時議會에提出 그리고明年度豫算은 目下水田司計課長이 携行渡東中으로同局長의渡東에依하야 本格的折衝에들어갈터인데 大藏省과의折衝은 도저히못하리라고 보인다

于學忠氏北上
河南省主席就任?

【漢口二十七日發聯合】于學忠氏는二十六日午後十一時五十分漢口發列車로平漢線으로北上하엿다 同氏는漢口到着以來張學良氏와 同氏의南下及自己의進退問題에關하야 다시蔣介石氏와面談하야 最後的決定을할것으로도보인다 于學忠氏의進退問題에關하여는種種風說이잇스나 結局當時氏가 河北綏靖行營主任으로轉化하되동이어 河南省政府主席에就任할것으로보인다

人事集會

▲片山浪藏氏(新任鎭南浦署長)二十七日午後九時十分京城驛發赴任

無學은男의恥
自宅을學校로 僅一個年에 卒業이된다

少年易老學難成 그는옛말。只今은自宅에서 工夫가되야쑥쑥출世이된다

最新中學講義錄
어대보다도卒業이第一빨음!!
어대보다도學費가第一싸다!!
內容이아조平易하야알기쉽다

朝鮮의獨學靑年

◇普通學 校만나온분은 朝鮮에멧十萬人이되나、不幸이도家庭의事情으로上級學校에도못가고、곳社會에나온분과家事助力을하는분이만히잇다。그런有爲한少年이普通學校以上의工夫를계속못하고無端이度日을한것은當者뿐아니라、非常時我國을爲하야도悲痛한일이다。

◇今日의 實社會에서成功함에는實際普通學校卒業學力만으로는充分치못하다。高等普通學校程度의學力업시면官吏가되에도官設學校에들어감에도實業家가되에도決코大成못할뿐안이라生活까지不安하게되나。

◇그러나 家庭形便으로上級校에通學못하고希望에룸다러서煩悶하고잇는분은엇찌하면조흔가、그것은本校의最新中學講義錄으로工夫함이第一조타。中學講義錄은世上에만호나、僅一個年의特急스피―드로척척愉快히卒業한것은이最新中學講義錄外에는업다。

◇入學한 직每月二冊式을舍용한講義錄을送本하고、따로趣味깁흔機關雜誌와極히有益한參考書各一冊式配本합으로每月四冊式配本이되고、自宅에서家事의餘暇에東京中學校에通學하야敎室에서배우는것과조금도無異한感想으로工夫도되고、쉽게中學全科가卒業되는組織이다。一個月四冊配本으로工夫할수잇는新式通信敎授法은스피―드時代에適切한理想的組織으로이最新中學講義錄의큰자랑거리다。

◇學科目 은左와如히中學全科를全部網羅하고이外에有益한科外講義도만히잇다。

▲修身 ▲英語 ▲幾何
▲公民科 ▲英文科 ▲三角
▲國文 ▲英作文 ▲博物
▲漢文 ▲英習字 ▲物理
▲作文 ▲歷史 ▲化學
▲習字 ▲地理 ▲農業
▲文法 ▲算術 ▲工業
▲圖畫 ▲代數 ▲體育

各科의先生은다多年敎育의體驗者임으로講義는平易하고親切히各冊마다挿畵를만히너어서親切平易를第一로하고、석자미잇서누구나다알게되고、척척工夫가되다。質問이잇스면幾回라도先生은귀찬하다안코、알드록까지질全鮮과東京間에서郵便으로明快히答하야가르키여준다。

◇學費는 右와如한바나 어대보다도싸고、實로學費에困難한獨學生諸君을爲하야決心하고奉仕的廉價가안이가

每月 講義錄……二冊 參考書……一冊 機關雜誌……一冊
合計四冊式配本으로 此外여러가지大特典付로
學費僅히一個月一圓

◇大特典 이우에獎學金贈呈과本校飛行機無料同乘券進呈、英和辭典漢和辭典贈呈、圖書室無料閱覽等을비롯하야他會에서到底히볼수업는여러가지大特典이다。

諸君의帽章

新學期開始 會員大募集

只今新學期는正히開始되려한다 全鮮의獨學靑少年諸君이여、이제躊躇업시이完備된理想的의最新中學講義錄에入會하야서、將來立身成功의基礎를잡으시라。

機會는다시안온다

見本無料進呈

葉書로申込次第見本付規則一冊을곳無代進呈、압느지면이저집으로只今곳내시라。

東京市牛込台町百與 大日本通信中學校

大阪地方在留朝鮮人問題 洪鍾仁記(13)

問題의渡航防止

당국은좀더랭정이하라

進退維谷의勞働同胞

대판조선인 동포문제에 대하여서는 아직도소개할것과 또론의하여야 할것이만호나 마즈막으로 일반적문제가 되여잇는 소위도항(渡航)문제를 간략히말하고 끗막으려한다 총독부측 으로서는 근자에와서 도항자 취체란문제가 더욱엄중하야 거이금지적 방책을쓰려고하고잇는 저 땅에건너가잇는조선인로동자가넘어만허실업자가만흔터에 다시만히건너간다면일본내지의 로동시장에도 큰혼란이잇슬뿐더러 조선인 로동자간의 생활문제로도 더 곤난하여진다 또그와가티 조선인이만히 건너가잇는때문에 독수한 문제가만히첩출하니될수잇는대로못건너가게하겟다는것이큰 리유인듯한데그실우리가보기에는 현재에계획실행중에 잇는정책을보건대일보의대륙정책상 남조선의 농민들일본내지로 보내는것보다는 만주방면으로 보내는것이 더필요하다는 뜻이 또중대한듯이보이기도한다

◇

생각컨댄 현재궁지에 빠진농민의 생활문제를 위하여서는 조선내에서 좀더 유리한사회적 시설에의하야 안전한생활을 할수잇게되기를 바라는것이나 그러치 못하다면 향으로도 떠난다는것도 막부득이한일이라고 할수밧게 업슬것이다 그런데 문제의도항자는 파연그와가티 엄중하지안호면 안될 형편에잇는가 이것은 랭정히 생각해야할문제이다 당국에서말하는대로 저땅의 로동시장에서 도저히 현재이상의 조선인 로동자를 마저 들일여지가업는가? 과연 그러타면 위정자의립장으로는 남어돌아가는 로동자와 집중을 막으려고 하는정책도 필요케 될것이 현실례일것이다 도조선인로동자간의 전반적 문제로보아도 일자리업는 우에더사람이늘어간다는것은 생각할문제이라 하겟스나 조선농촌에서 살든것보다는 얼마만흘이라도 나흔점이 잇다면 저땅에건너가게된 로동자들의 각자의 립장으로서는 하지안홀수업다. 그실제사실을 돈다면 다수의농민이 당국의방지를 무릅쓰고 비밀히 모험을해서 바다를건너 가는것도 만흔것으로보아 살길을 차저헤매이는자들의설움을충분히참작하야 볼바일 것이다

◇

그런데 대판의사정으로 본다면 대판당국자들로서는 현재 조선인로동자는포화(飽和)상태에잇다고한다. 현재잇는대로는알지라도 더들어서먹고살수 잇으나현재이상으로건너오면 곤난할터이라고한다 그러나 파연포화상태인가 하는점은 나로서는 어떠타고말할수업는근거가잇다 그근거는그곳조선로동자들의생활이 극히 간단하야 적은수입을가지고도 오히려 여유를남기는 생활을 하고잇는 사실을본까닭이다 전일에 생겨조사에 나타난수자로 보아도 여유를 남기고 잇는것이 려연한사실임을더려 대판부 경찰부내선과의말을들어도 대판에 잇는 조선로동자가 고향에 보내는돈이 일년에 약이백만원되다는말도 들엇다. 이런 사실로본다면, 저땅의 살림이조선농촌에서의 살림보다는 나흔 점이잇음을알수잇다 그러라면,도항방지 문제를단순히 방지책만 쓸것이안이라 조선농민의 생활문제를 위하야구체적 방책을쓰는것이 올흘것으로 생각한다 만일그러치 못하다면 도항자를중심 으로 비극은 더심하여갈뿐 일것이다

◇ (끗)

大移民計畫前哨로 明年度에二千戶

于先三南地方農民부터着手

滿洲大量移民具體案內容

총독부의 조선인만주 대이민계획이 래명년부터 실시된다함은 작보한바와갓거니와그러면명년에는이민을 어떠케 한다는가하면다음과가티 구체안이 결정되엇다한다 명년에는 래명년의대개획과는 전연달리 잠정적일시적사업으로 주로삼남지방 농민 을 이천호약만명을 북만주에이주식히게 되엇다는데 이에필요한경비는 총액이백만원 으로서이것을 동아권업공사(東亞勸業公司)에위탁하야 명년사월부터곳실행한다고한다 이때문에 금직(錦織) 동아권업공사 전무는일전에 입경하야 총독부외사과와 구체적협의를마치엇고 또전중(田中) 외사과장은 이재무국의사저까지지어든 이백만원 예상의구체안을 가지고 주앙당국과협의절충한결과 전부량해가 성립되얏슴으로 오는의회에 예산만통과되면 이구체안의 실현을 볼것이라한다

滿洲에農事紛爭 調停機關設置

農事補導會名目으로奉天에 各地에는分會를設置

【奉天廿六日發聯合】 금년봄이래로 자주발생한 조선인과만주인사이의 분쟁을 해결할목적으로설치된 수리조정위원회(水利調停委員會)는 문제의범위가 좁음으로 이것을더확대하야 농사천반에미처 일본내지인과 만주인의 분쟁조정기관으로서 봉천성 농사보도위원회(農事補導委員會)가 설치되엇다

그구성은 봉천 일본령사관에서두명 헌병대에서 한명 협화회(協和會)에서 한명 조선사람측 한명 봉천공서(奉天公署) 네명으로도합 아홉명으로조직되엇다 그위원회는 각현에 각각분회를 설치하야 지방적습관에 비자하야 문제를원만해결하기로되엿다

慈善音樂盛況

【東京】 동경에 류학하는 칠천의 류학생과 동경조선유학생협회 공동주최로 남조선의수해와 관서지방풍수재 이재동포를 구제하고저 재동경 조선류학생단체연합 풍수해구제회를 조직하고 그사업으로 시월이십일오후 여섯시반부터 본소(本所)공회당에서 세신분지국과 관서풍수해구제회의 후원미테 음악무용회를 개최하엿다 음악은 安榮子 林蕙嬰 崔聖子 洪志裕 金聖樂 金泰淵 崔南照 朴景鎬 李想春등제씨、무용은 崔承喜、金敏子、谷百合子、多田和子等 下井洋舞踊研究所員一同의출연이잇섯는데모힌이가일천사백명가량으로 대성황을 이루고열시반경에 페회하엿다.

釜山으로護送

被檢者三名

【馬山】 부산과진해를중심으로 적색운동자의 대량검거는경남일대를 걸처 아직도맹렬한활동을 전개중 지난이십이일마산에서도 중요인물 삼명을검거하엿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지난 이십오일에는 상남동(上南洞) 권태성(權泰成)집을 수색하야 다수의서류를 압수하여 엿

蹴球前記

"녹크"·家庭을破壞

閨房의뒷문을두다린까닭으로 愛妻를걸어離婚提訴

자야 삼경에 젊은부부가단꿈을 꾸고잇는방 학계사 창문을두다린 괴상한남자가잇서 그는드듸여 자미잇는남의가정을 파괴하고말엇다 경기도 수원군영일면리목리(水原郡利日面梨木里)사는 류덕종(劉德鍾)(三一)이라는청년은그의안해조만금(曺萬金)(三三)을상대하야이십칠일에경성지방법원에리혼청구의소송을이르켯다 그소장의내용을보면 그는 지금으로부터 열일곱해전에 그의안해와서로 결혼하야 가티살아오든동안에 자녀 사남매도낫코 아주안락한생활을 해왓다 그런데 금년 음력팔월초이일밤에안해와 아이들과 가티자기집안방에서 자고 잇섯는데 밤중에 어떤사람이창문을똑똑두다리며 누구인가와다는것을 알리는듯이 뵈이일이잇섯다 그소리를 듯자마자 안해는 별안간에큰소리를 내여 남편에게 대하야 래일 아츰에는 몃시에 일을 하려나갈터이냐고 뭇는

—사진은 제막된 김기중씨동상—

延專? 普專? 覇權은어데로

"朝體"十五週綜合大會 興趣깁흔專門蹴球

體育朝鮮의象徵的事業에잇서 기운찬 첫足跡을내드듸기시작한後 歷史는흘러서 朝鮮體育會는이에 어느듯 創立十五週年을맛게되엿다 그동안에實로 스포ー츠朝鮮의基礎를 着着築造함에努力한것은 勿論이요 갓가히는極東의舞臺에, 멀리는世界舞臺에까지各各選手를보내어 世界的爭霸에 參加시키여서 世界의眼前에 體育朝鮮의 存在를 곳세계印像시킨 그功績이야말로 우리運動史上에燦然히 빗나고도 남는것이잇다 이意義잇는 創立十五週年을記念하는意味에서 來月一日부터四日間鐵道局京城運動場에서 열리綜合競技大會는 斯界의健兒들이 總動員하야蹴球、籠球、庭球、野球、陸上等各部門을通하야 多彩한『올림피아ー드』를 展開시킬것이다 各種競技中에서도 興趣깁흔對陣의 한가지를 이에紹介하야 同大會前記에代하려한다

蹴球部 에잇서서는 普專과延專의專門校爭霸戰이 가장人氣의焦點이될것이다 昨年의覇者平壤崇專이그자최를감추엇슴은 寂寥를늣기게한다 해마다普專、延專、崇專의 三角戰이 滿天下팬의가상을옴족이게하엿스나 今年에는 普專과延專이覇權을다투게될것으로 傳統을자랑하는兩軍의對戰은 벌서부터 非常한興味를集中케한다 이제兩軍의陣勢를檢討하면 過去二三年間은 普專이優勢로 내려왓스나 今年에드러서 延專은金成玕(CF)、柳燦春(LI)、韓甲鎬(RI)君等의優秀한FW를攻擊線에세우고 金昌培(CH)、鄭讚洙(LF)、卞洪錫(RF)、鄭三雲(GK)等의 堅陣으로防禦의充實을期하고잇다 學期試驗을畢한 延專은連日어둡도록『홈그라운드』에서 制覇를目標로 猛練習을거듭하고잇서『팀워ー크』에잇서서는더할수업는 好調를뵈이고잇다한다

이와對戰할 普專의陣形은엇더한가? 普專에는今春蹴戰이 北中國天津에 遠征時어든바經驗을가진驍將으로 金容植(CH)、裵宗鎬(LI)와 老巧李致淳(CF)、朱大德(LH)、孫彼得(GK)과新進인高漢寬(CF)、洪性熙(LF)、朴孝濟(RI)君等을加하야 宿敵延專을暈破코저連日京城球場에서 몰보다뜨거운練習을쌋코잇다 技倆伯仲한兩軍은 果然엇더한氣戰으로對할것인가 勝敗의歸趨가 決定되기까지에는 輕輕히豫斷을許치안는다

延專의金成玕을中心으로한FW線은 普專의金容植을中心으로한HB線을突破하는것으로運命의岐路를삼고잇다. 兩軍은로서는從前과가튼 個人的技術을 發揮치아니함에一層깨임은 白熱化할것이며 全軍의底力을본다면 實力은 接近하여잇스니 例年에보지못하는 熱技를뵈여줄것이로期待된다 【高鳳梧記】

柔道輸入卄六年 記念柔道

盛況裡에閉幕

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 柔道輸入廿六週年記念柔道大會는昨二十七日午後一時부터 鍾路靑年會館에서 張稷、李圭鉉、裵秉烈三氏審判下에 紅白戰을行한바 이날의入賞者는다음과갓다

▲一等韓昌源(徽文) ▲二等金東樺(順道) ▲三等洪性五(徽文)、金範吉(基靑)、姜命浩(順道)、柳德吉(基靑) 四等李泰根(徽文)、金光泰(徽文)、金永奉(徽新)、鄭憲甲(徽文) ▲五等朴泛秉(基靑)外廿五名

露人팀마저 卄九日平壤서

國際籠球戰

【平壤支局電話】 籠球의 珍客! 哈爾賓에잇는 白系露西亞人YMCA籠球團을마처 關西體育會、崇實體育部共同主催와本社平壤支局後援아래 來二十九日과 三十日의兩日間(每日午後六時半)崇實體育館에서 國際籠球戰이열리게되엿다 때마츰全平壤籠球戰이열리어 連日盛況을이루고잇는때이라색다른 露西亞팀을相對로 各軍의奮鬪는 非常한人氣를이끌고잇다

早慶野球戰 早大先勝

廿二勝의同率

【聯合東京電話】 東京大學野球리ー그戰早慶二回戰은 二十七日午後一時三十四分부터 神宮球場에서 慶應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一A對零으로早大勝 이로써 明治三十一年 早慶戰開始以來 四十四回對戰에 早慶各히二十二回勝이거 同率로今二十八日의 決勝戰이볼만할것이다

慶 000000000
早 10000000×
A1—0

運動界人事

▲金弘楠氏(松都光武館師範)는廿六日遭內艱

故圓坡翁銅像 盛況裡除幕

社會各界人士參集

조선교육계의 은인고원 파김기중(故圓坡金祺中)씨의생전사업을기렴하기 위하야 일즉부터 기렴동상건설회를 조직하고 활동중이든바 드듸여등신좌상(等身座像)의동상이완성되야 이십칠일오후두시에 중앙고보교정 에서 제막식이 윤치호 (尹致昊)씨사회로 회장에는고인의영윤 김성수(金性洙)씨를 비롯한 고인의 유족과 사회각계의인사 및중앙교우、재학생、보전교우및재학생들이 참석하야 성황리열니엇다 최규동(崔奎東)씨의 략력이야기와 송진우(宋鎭禹)씨의 사업보고가 끗나자 김활난(金活蘭)、유억겸(兪億兼)량씨의 헌사와 긔중씨의령손상오(相五)、상규(相珪)량군손으로 제막이 되여고인의 모습이다시 낫타난듯하엿다 다음

여운형(呂運亨)씨기렴사 가잇섯고경긔도지사대리、원한경(元漢慶)씨 본사사장방응모(方應謨)씨、권동진(權東鎭)씨、보전교우대표김용무(金用茂)씨、중앙교우대표옥선진(玉璿珍)씨등 축사가잇슨뒤각지로부터온륙십여통의 축문축전랑독을 최두선(崔斗善)씨가읽고영사(令嗣)김성수(金性洙)씨의사사(謝辭)를 끗으로폐식되엿다

仁川署에逮捕

店金橫領店員

【仁川】 원산부(元山府)룡리(龍里)구십구번지환조(丸朝)운송점점원위광환(魏廣煥)(二二)일명김홍철(金洪鐵)은점금이백여원을 횡령한후 인천으로와서 양복까지 사서변복한후 상해로 가랴고 출범일을 기다리고 잇든중 지난 이십오일오후 륙시경시내를배회하다가 외리(外里)파출소에 체포되엿다는바 그외에도다액의 점금을소비하고 주인을대할면목이 업서서 전긔와 가티 도주하랴고 한혐의가잇서 방금인천서에서엄중취조중이라한다

한글긔념식

부내수표정사십이번지에잇는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는 훈민정음반포 제사백팔십팔회의 긔념식을다음과가티 거행한다는데 뜻잇는분은 만히참석하기를바란다한다

時日 十月二十八日午後五時
場所 仁寺洞天香園
會費 七十錢

道路使用地買收 公定價格을差別

一部人士에만高價로秘密契約

漢芝面當局의駭擧

【漢芝面】 대경성 건설 목표로 경성부에서는 벌서부터경남일대(京南一帶)를 도시 계획속에 넣코실현 준비에 밧분이때에 리태원(梨泰院)과 한강리(漢江里)사이에는 날로인구가평창하여지며 가속도로 발전하야현재 인구는 삼년전에 비하면삼배이상이나 초월햇다는데 리태원과 한강리 사이에하나 밧게업는일백륙십오메ー돌의 구도로는 갑작어 조밀해진 인구의 번잡한동행으로 매일교동 사고를내다십히 함으로 한지면사무소에서는 지난사월 부터이도로를 확장하고관내에서일만륙천여원의긔부를거둔후토지매수에분망하든중 리태원의건물이드러안즌륙백여평이 말성이되여서 여태것공사를 착수치못하나가 지난이십이일밤 조양학원(朝陽學院) 강당에서 지주대회를열고 한지면장 박원신(朴元信)씨는 공평하게 일등팔원과 삼등 륙원으로분할매수한다하야 만약 복응한다면 몰가피한 사정으로 토지수용령(土地收用令)까지를 적용하게된다고 언명함으로 일반동민들은 이에응하야 매도승서에다가날인(捺印)을 햇다는데 다음날아러본즉 리태원 칠십삼번지의 면협협의원국전구남(菊田久男) 길전(吉田)량씨외토지는매평십삼원식에다비밀계약을하엿슴이 판명되여 한지면당국의 해거에 격분한 리태원주민 일동은이신오일아츰에 한지면 사무문살도하야 면장박원신씨에게 그진의를질문한후 다음날 동민대회를 개최하고 한지면사무소의 괘심한행동에 대하야 적극적으로대책을강구하리라한다

이에대하야 한지면장 박원신씨는다음과가티말한다

漢芝面長 談

『도처과 군청에서는벌서부터 재촉을함으로 나는 면협의원 외리홍순(李鴻淳)씨와국전구남(菊田久男)씨에게다전책임을지어노와서 자세히 모르겟습니다 퍽 미안합니다』

梨泰院 某地主談

글세올시다 처음의 면장말은 한평에 팔원으로부터 륙원까지주겟다해서 이것도 관청일이라 울며계자먹기로 매도증서에다 도장을찍엇드니 나종에알고보니 몃몃사람만 십삼원식주기로 계약을 햇것나요 그래서 우리들은 면장에게무르니 자긔는여긔에는 간섭하지안으닛가 모르겟다고 합니다그려? 이런 낭동적행동이어데또 잇슴닛가 우리는분해서도 그냥아니잇겟습니다 云云

義城赤農事件 來月二日開廷

【大邱】 공판에회부된채로년을거듭하든 경북의성 적색농민조합 사건(義城赤色農民組合事件) 의박명출(朴命出)은오는 십일월이일 오전십시부터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제사호법정에서 개정키로 결정하얏다

徐元俊覆審公判 來月九日에開廷

【平壤】 조선○○당결사대원서원준(徐元俊)(三五)과한가지로동사건의피고 김기진(金基鎭)(三四) 조봉순(趙鳳淳)(二八) 리찬원(李燦源)(二六)등사명은일심의판결을 불복하고 공소하엿다함은 긔보하엿거니와 이공소심은 오는 십일월구일 평양복심법원 시본(矢本)재판장주심 횡전(橫田)검사립회아래 공판이 개정되기로결정되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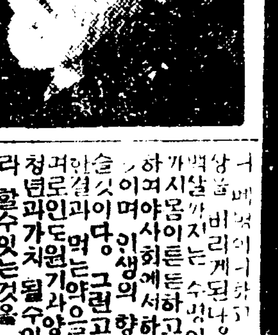
松本孃白菊號 始興에不時着

박만비행의 도상에잇는송본(松本)기쿠꼬(菊子)양은 이십칠일오후령시이십구분에 울산(蔚山)비행장을 출발하야 경성으로향한후 오후다섯시가지나도록 도모지 여의도(汝矣島)비행장에 나타나지안흐드니 오후여섯시삼십분경에 시흥역(始興驛)부근에 불시착륙한것이 판명되엿다 송본양과 기체는 모다무사하다

日曜講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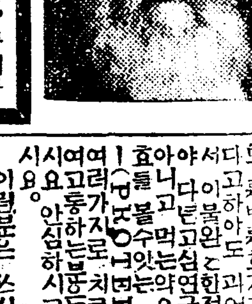
▲南大門敎會 午前十一時『깃으로운건넌자』朴學田牧師 午後七時半『예수의過去形便과現在權勢』金英珠牧師
▲壽松洞覺皇寺 午前十一時『無我愛』朴允進 氏
▲向上會館 午後七時三十分『金剛經講義』第五回 李智光 氏
▲中央敎會(日曜說敎) 午前十一時『基督의友』梁明煥牧師 午後七時『信仰의偉力』金永燮牧師
▲阿峴敎會朝間講話『十字架上의眞理』卞鴻圭博士 夕間講話『熱心으로主를섬기라』張應根先生
▲貞洞敎會午前十一時『크리스도의싸홈』姜泰熙 氏 午後七時『十里를가자』姜泰熙 氏
▲三淸洞敎會 午前十一時『燈臺아래예수』金鎭浩牧師

梨花女專保育 YWCA 主催
朝鮮日報學藝部 後援
秋期大音樂會
프로그람 ー追後發表ー
十一月三日밤七時・培材흘에서
會費 1.00圓 50錢 30錢



보양 보음
젊어지는약은
가이자가제일이요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
제일속히듯습니다



매독에는
푸로다ー가제일이요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側(五)
直輸入株式會社 神崎神聖堂藥品
發賣元

◇仁川府의全景◇

仁川紹介版

大仁川建設의急務
紹介號發行에際하야
仁川支局長　崔晉夏

仁川은 昔日濟物浦라稱하든荒寒한一漁村으로서의 今日對內對外의唯一한開港場이오 首府京城의 咽喉地로서 地理的으로나 歷史的으로나 政治的外交 及는軍事的行動으로나 이미世界人의 周知하는바이다 實로往昔과 仁川을追憶하고今日의仁川을目睹하면 모든文化施設의發展이바도多하거니와 桑田碧海의悠久한限도입지아니하나 沿海의蒼生들의 魚介를採掘하든船浦口는二重閘門式의一大船渠로變遷되엿스며 白帆의짝을지어江湖의樂을 부르짓든古渡는 天涯를咫尺과如히航行하는巨船大舶의 汽笛소리로化하고 밀엇다樹木이鬱蒼한저月尾島는洋夷艦隊의 交互碇泊한根據地로서 一八六六年 即韓國時代 李太王三年丙寅에 佛蘭西艦隊가侵入하야 江華島事變을일으키엇스며 一八七一年에至하야는 米國艦隊가同島와栗島사이에 碇泊하야平壤事變을一契機로國交條約을 締結케되엿고 明治八年即李太王十二年永宗島의 雲揚艦砲擊事件은江華島條約即 日韓兩國의修好條約의締結을促進하야仁川의開港을見하게되엿스니 仁川은於是乎歐米各國과의 通商條約을逐次締結하고 外國의文化를輸入하야써 仙逸國이라別名을듯든朝鮮鎖國의꿈을 깨여준一指導者라하여도 過言이아닐것이다

×

實로仁川은 國際的關門이오朝鮮文化史上의 貴且大한紀元으로 모든役割을다하엿거니와 政治史的으로도 幾多의變遷推移를經하야 今日의仁川을形成함에至하엿다 果然濟物浦 時代로부터 開港五十周年을 經하기까지의 由來를보면人口의 增減은 그土地의發展과 交通進步에 多大한關係를 有하나만큼 京仁鐵道가 敷設되고仁川築港工事又는 海面埋立及 大小工場이逐次設置됨에 따아 勞働者를吸收하게되며 從하야來住者가漸次增加하야 今日의七萬人口를算하게되엿스며 産業으로는 就中米穀業이 가장發達되고 玄米의取引이 盛行되어 玄白米의輸移出이 年百六七十萬石乃至 八十餘萬石에達하는全朝鮮總移出米의 二割을占하고貿易年額은 一億二千萬圓을算함에 至하엿스니 港으로生命을삼는 仁川은世界的貿易港이며 米의仁川이라 誇張할수잇는良港이다 此는鄕土愛로서의自誇보다도벌서 天下에著名된지 己久이다 産業商業、貿易交通、敎育、社會事業等모든施設이他港에比하야 遜色이업시되여잇거니와 우리의實際生活를떠나 遊樂方面으로본다할지라도 東公園、西公園、月尾島等公園과 仁川海水浴場、動物園其他娛樂場設備가잇서 花節의賞櫻客과 夏季의避暑客과 丹楓景의詩人墨客이雲集陸續하는可謂天與의一大樂園地帶이다

×

仁川은이와가티貿易의仁川、쌀의仁川、樂園의仁川을 자랑하미、又는建築의形勢를觀하야都市計劃又는 約一千萬圓의第二築港閘門을걸처노코 京仁一體의猛運動을斷行하야 不遠한時日에實現되려하는今日에잇스나 市區의施設이너머나 差別的이어서 市街美의缺陷과 公眼으로서의遺憾이 업지아니하다 山根바의丘陵을限界로하고 南北村을隣接하면南村은[illegible]施設이遺憾업시完備되어잇스나北村은[illegible]한 거리에蕭條한[illegible]時代의狀態를脫치못하고잇스며 來人去客의嘗歎을말지안는 [illegible]地帶가잇는 그反面에는 男女老幼가 飢寒을부르짓는 土幕사리의村落이잇스니 此는現社會制度에 免치못하는現象이거니와仁川에제일살기조타고 男貧女富하고 차저온民衆이 果然

그러면어ㅓ할것인가? [illegible]仁川이라고도 할수잇는 仁川에잇서 무엇보다도 工場의[illegible]가 多하여야할것이며 市區의差別을撤廢하여야할것이다 [illegible]의 責任感이 엇지안을것이오 [illegible]에 [illegible]하여야할것이다 [illegible]所의 精米所와 朝鮮사람의오 직[illegible]工業社와 金屬[illegible]의 子工場을비롯하야 東紡仁川工場이建設되어 勞働者의生活問題가逐次解決되는 途中에잇스나압흐로도 工業家가續出하기를바라는바이며 府當局으로서 仁川의모든공事業을實現케하야 商工都市로서의 地域差別이업는大仁川을建設하기를 大望하는바이다

人口七萬을包容한
朝鮮의國際的關門
往昔의濟物浦、而今의仁川府
溯古하면感慨千萬

位置

仁川府는京畿道西海岸에突出한 小半島의 突端에在하야 東經百二十六度三十七分 北緯三十七度二十八分 面積○、四二方里、東西一里十五町十四間 南北三十二町三十八間 一周里程四里十四哩一分이며 府勢는凹凸硬針의地面이多하고 中央에는東西에亘한 丘陵이橫在하야西南으로부터海岸一帶는 中國人居留地一部와 日本內地人의市街를形成하고東北一帶는 朝鮮人家屋이櫛比하야 南北二部로區分하여잇스며 港灣은月尾島、小月尾島、沙島等島嶼가 目睫前에橫在하야 內港을圍하고永宗、龍遊、舞衣、紫月、靈興、大阜等諸島는 멀리雲霞中에羅列하야外港을일우어잇다 實로外港은그威勢雄大한天海의 一大港灣이오 더욱이京城의唯一한關門으로는京仁鐵道의 終點且漢江末流에接하야 水陸의便이잇슬뿐아니라 東西海洋의一大貿易港으로의가장重要한 地點에處하여잇다

沿革

仁川은古馬韓의地로서 高句麗가買召縣(一名은彌鄒忽)을置하엿든곳인데 新羅景德王時에邵城이라 改稱하야 栗津郡(元果川郡)의管轄로되엿다가 高麗顯宗時代에는 樹州(元富平郡)에屬하고 肅宗王時에는 一躍慶源府라稱하엿다 此는當時順德王公이出生하야十二人의 子孫及有名한 太樂師가輩出하엿슴으로 그土地를昇格한것인데 仁宗時代에 仁州라다시改稱하고 高麗末期에 再次慶源府라稱하엿스며 李朝太祖元年에 또다시仁州라改稱하고 太宗十三年에비롯오 仁川이라稱하야 郡으로하고 世祖六年에는 昭憲王后의外鄕이라하야 都護府로陞하엿다가 其後다시郡으로恢復되엿든데 實로仁川은李朝末에、仁川監理署와共히 現富川郡文鶴面官校里一帶로부터 濟物浦에移轉하야仁川港通商事務衙門을設置하고監理署命하야 外交、裁判、警察、稅務及普通行政事務를掌理하여 오다가其後衙門을廢止하고仁川察府及監理署、仁川府等行政史上의幾多의變遷趨移로서 今日에至하엿다

年貿易의概況
一億四千餘萬圓
開港五十週年의新記錄

仁川港은 京城의重要關門일뿐아니라 北으로大連에臨하고更히歐洲貨物의仲繼港인 上海에接하엿슴으로 그貿易關係는對日本內地及中國에 止할뿐만아니라 世界的商勢圈을가지고잇다 然而開港當時의貿易額은極히微微하야 그年額이겨우五十六萬餘圓에不過하엿스나 其後日淸、日露二大戰役을經하고更히大正三年에 歐洲戰亂이勃發하야日本財界의好轉과 船舶의海外發展等으로 貿易의進展은加速度의好影響을밧게되엿다 實로歐洲戰亂의 餘波는日本生産工業에異例의 發達을促하고取引의隆盛을招來하야 大正七年度貿易은 一躍四千四百七十三萬餘圓을 算함에至하엿섯다 그뿐아니라 同年末에는 仁川으로서의 一大劃期的事業이라할수잇는 二重閘門式의築港工事가完了되어 從來潮位干滿의高差에非常한 困難을바다오든船舶의出入과 海陸連絡의不便이一掃되고 荷役時間의短縮及附帶貨物의輕減은 一層貿易의繁盛을助長하야 船渠竣工翌年의貿易額은一躍九千九百十餘萬圓으로 躍進하엿섯다 爾後戰亂의終熄과 共히襲來하든財界의恐慌으로 一時貿易은多少減退를 示하엿스나 其間商勢作興에 努力한結果 大正十一年에至하야는 貿易額一億萬圓突破의 新記錄을作하엿다 如上의順調로 推移되든 當港貿易은그翌年인 十二年九月關東震災로金融界의 恐慌에多少의障碍를蒙하엿섯스나 銳意取引의振興改善에 努力한結果그다지큰差異가업시 그해를보내고翌年부터다시挽回하야 昭和三年度貿易은 一億四千十七萬六千餘圓으로 開港五十有餘年의 最高記錄을突破하고 同五年과如한財界의深刻不況임에도 一億一千二百二十九萬八千餘圓의數字를示하엿섯다

名勝과古蹟

◇花島鎭＝現在 新花水里一帶의地로 그地形이마치 꽃과가틈으로 花島라稱하엿든데 往時花島鎭別將이 駐在하든곳이며 그建物의形跡이아즉殘存하여잇다

◇韓國時代砲臺 洋夷外船의 侵入을 防禦하기爲하야 左記의砲臺를設備하엿섯다
一、猫島砲臺 (그形跡이尙存)
二、北城浦砲臺 (現在 仁川驛東西外人墓地所在地와 仁川驛上方稅關倉庫地點에잇섯스나그形跡이 업서지고말엇다)
三、江華島永宗島月尾島의砲臺

◇凌壺臺＝仁川을 距하기東南一里餘의海岸即松島海岸의地點인데 朝鮮李太祖時代로부터 明國神宗皇帝時代에까지明朝로서의 使臣과李朝로서의使臣이往來하든一種埠頭이다

◇別離峴＝仁川을 距하기約二里에 在한俗稱「비리고개」인데 往時朝鮮서 明國(南京)에遣하는使臣이此處에休養한後凌壺臺海岸에서出帆하게되엿섯다 然而當時는航行이發達되지못하야往往海中에葬하는때임으로使臣된家族과知己가此別離峴에와서서로 落淚하며그峴上에서멀리海上의帆影을바라보면서 斷腸의別를하는곳이다

◇濟物浦條約調印의跡 市內本町一丁目과支那町의接續地點은明治十五年事變時에日本陸軍假營舍를設置하엿든곳으로 再度仁川에上陸한 花房公使와 韓國政府大使李裕元、金宏集兩氏와의濟物浦條約을 調印하든곳이다

◇典圜局跡＝明治二十五年에 韓國政府는京城南大門外에잇든造幣局을現在山根町高等女學校敷地에移轉하엿든곳이다

◇文鶴山＝仁川을距하기東方一里餘에잇는文鶴山은그頂上에新羅邵城의遺跡이잇고 其後는烽火臺를設置하엿든곳인데 朱蒙의長子沸流即彌鄒忽王의都邑을定하엿든곳이라고도한다 그러나沸流는彌鄒忽의土地濕하고 水鹹하야 安居하지못하고 河南慰禮城에서 其弟溫祚即百濟始祖(當時는十濟)가都邑을鼎安하야 十臣의補翼으로 國泰民安함을보고慙悔하야死하엿다는傳說이잇다

◇蘇來山＝新羅時代에百濟를征伐하기爲하야 新羅國으로부터當時唐國에對하야應援兵을請하엿는데 唐國으로부터將軍蘇定方이此山에留陣하엿다하야 山名을蘇來山이라고하엿는데前記文鶴山과 蘇來山은元仁川의名山이다

◇永宗島＝舊韓國時代에防禦使가 駐在하엿든곳으로 砲臺와兵營의遺跡이 아즉도殘存하엿는데 明治八年에雲揚艦砲擊事件이잇섯다 그리고同島는 飛鷰이多하다하야一名은紫燕島라고도하며 往時中國으로부터 來朝하는使者를接待하는慶源亭이잇섯다고하나 現在는何等의遺跡이업다

◇勿藥島와栗島＝李太王三年에 佛蘭西艦隊가 同七年에는「아메리카」遠征隊가碇泊하든곳으로 現在는日本內地人鈴木의所有인 一公園이다

◇江華島＝同島는 仁川近海의 要塞으로서 往時佛蘭西及米國의艦隊가 來航하엿슬때에 朝鮮守備兵과의激烈한交戰이잇섯든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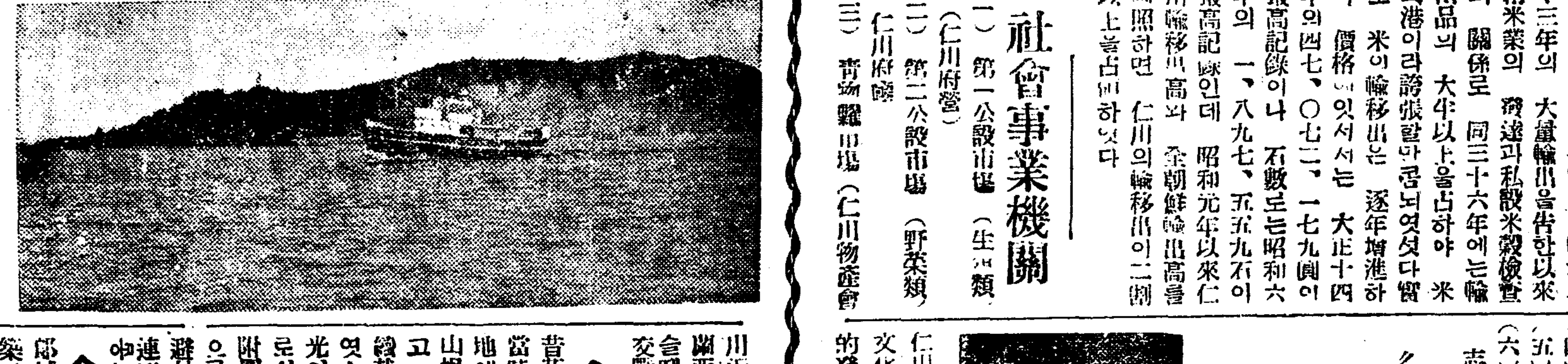
◇月尾島＝同島는往昔花房公使의避難하엿든곳으로當時는鬱蒼한綠林과 荒蕪한草地에不過하엿스나 日露戰役後山根將軍一行이 櫻花를栽培하고 그後仁川府에서 一大公園을設施하엿스니 實로山勢奇妙하고 風光이佳絶한 朝鮮唯一의樂園地로서 潮湯、호텔、海水浴場、附屬動物園、諸娛樂設備가잇슴으로櫻花期의賞春客과 夏節의避暑客과 丹楓時節의遊泳客이連絡不絶하야 仁川의繁榮을도와는名勝地이다

◇三郞城과傳燈寺＝三郞城은 檀君의子三郞이가城을築하엿다는說이잇스나可考할文獻이업고傳燈寺는中國元朝時代에어느公主가玉燈을 傳하엿다하야傳燈寺라고名命하엿는데그玉燈은燈火가업서도曙光이燦爛하엿다는바 그玉燈는丙寅年洋擾時에洋夷에게奪取한바되엿나

◇小月尾島＝同島는日露戰役當時에 露國艦隊의「와라야-크고레-쓰」二艦이 그日捷의地點에서 爆沈되엿든곳으로 現在는燈臺와 無電電信所의施設이잇다

◇東公園＝元來 八坂樓라는名稱으로 그境內에神社가잇스며 最好絶勝한곳이다

◇西公園＝元各國公園으로 日韓倂合以後에西公園이라改稱하엿는데 그頂上에府有의淸光閣即府立圖書館이 잇스며 그北便으로는 仁川觀測所와朝鮮總督府의 別莊이잇는데元來는獨逸商人事務所의 敷地로서遊人騷客이四時不絶하는곳이다



◇月尾島의全景◇

敎育機關

▲仁川公立商業學校(朝鮮人)二五○名(日本內地人)三六一名 合計六一一名
▲仁川第一公立普通學校(男)一二四六名、女三五八名合計一六○四名
▲仁川第二公立普通學校(男)二○八名(女)六○名合計二六八名
▲仁川博文普通學校 四五○名
▲仁川博文女子普校 四二七名
▲仁川永化普通學校 三九六名
▲仁川永化女子普校 三○五名
▲仁川公立尋常高等小學校(男)六○○名(女)五六二名合計一一六二
▲仁川公立尋常小學校(男)三八六名(女)三七八名合計七六四名
▲仁川公立高等女學校 八三名
▲仁川商業補習學校(男)三一名
▲私立永化幼稚園 (女)三八名 合計六二名
▲私立花島幼稚園 七五名
▲私立博文幼稚園 七○名
▲仁川紀念幼稚園 六七名
▲仁武學院(男)一一六名(女)一一名 合計一二七名
▲青山學院(男)一○五名(女)一六名 合計一二一名
▲花島學院(男)一八七名(女)四八名 合計二三五名
▲永信學院(男)九一名(女)三二名 合計一二三名
▲東明學院(男)九四名(女)一○六名 合計二○○名
▲啓明講習所(男)一四四名(女)一一一名 合計二五五名
▲鑑法學院(女)九九名
▲華僑小學校(男)六○名(女)四○名合計一○○

社會事業機關

(一) 第一公設市場(生活必需品類)(仁川府營)
(二) 第二公設市場(野菜類)(仁川府營)
(三) 青物離市場(仁川物産會社代行)
(四) 職業紹介所(仁川府立)
(五) 共同宿泊所(仁川府立)
(六) 朝鮮人慈善會(朝鮮人有志經營)
(七) 製繩工場(朝鮮人慈善會附屬)
(八) 仁川慈善會(日本內地人經營)
(九) 佛敎非田院(佛敎聯合會設立)
(十) 佛敎振興會(朝鮮人婦人界組織)
(十一) 公設沐浴場(故野口文一氏의指定寄附에依한設立)
(十二) 公設理髮所(公設沐浴場內併置)
(十三) 私立孤兒院(天主敎附屬)
(十四) 公設質屋(仁川府營)
(十五) 共同洗濯所(龍岡町、金谷里、新花水里三個所設置)
(十六) 公設運動場(山根町、月尾島)
(十七) 圖書館(仁川府立)
(十八) 公會堂(仁川府立)
(十九) 臨海學校(愛國婦人會及篤志婦人會의創立으로追地方費及京仁兩府가補助)
(二十) 海水浴場 (臨海學校附屬)

米의輸移出
全途의二割占領
名實相副한"米의仁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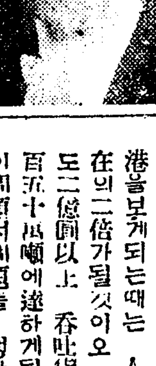
仁川은쌀의 仁川이라고하야도 誇張이아니다 明治二十三年의 大量輸出을告한以來 精米業의 發達과私設米穀檢査의 關係로 同三十六年에는輸出品의 大半以上을占하야 米의港이라誇張할만콤되엿섯다 實로米의輸移出에잇서는 大正十四年의四七、○七二、一七九圓이最高記錄이나 石數로는昭和六年의 一、八九七、五五九石이最高記錄인데 昭和元年以來仁川輸移出高과 全朝鮮輸出高를 對照하면 仁川의輸移出이二割以上을占하고잇다

"我仁川港을
一大商工都市로"
永井府尹의抱負談

仁川은 開港五十有餘年에모든文化의 施設과商工業界의驚異的發展을 告하엿스나압흐로도 要望하는모든問題를 解決하려고 府當局은 各方으로努力을 加하는中인데 永井仁川府尹의 抱負는 左記와갓다

「我仁川은 首府京城을 背後에두고 天與의 地位를占한 良港으로開港五十年間에 京仁鐵道의敷設과 船渠의築造等 海陸兩方面의 施設이 着着進行되고 都市의 陣容을整齊하야 貿易年額이 一億二千萬圓을 算함에至하엿스며 世界의交通 은 海와陸으로又는將次空으로 向上發達하는途程에잇서 今日의大連靑島는 一葦帶水의 彼岸이라하여도 過言아닐것이다 建國되지 三年을經한滿洲國의貿易이 逐次로進展되어가는地利를占한 我仁川은此機會를逸치안코 飛躍하지안코면안될것이며 往昔과如한一商港에自安하지말고 東紡工場과如한 各種大工場을誘致하야 一大商工都市로 하지안코면안될것이다 東洋一로誇張하든二重閘門式의 築港도 狹隘를告하게되어 更히大船渠를築造하려고 하는바此亦不遠한時日에 實現될줄로想像한다 過去五十年間은 基礎도하고 向後五十年間에는 더욱一致協力하야 적어도朝鮮에서의阪神港과如한港을맨들意氣를가지고勇進無退하여야할것이다」라고 (寫眞은永井仁川府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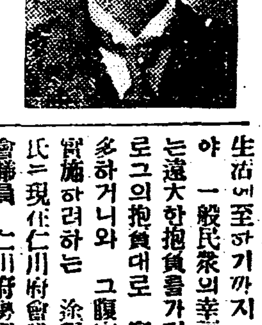
"仁川의生命은
港灣의大擴張"
吉田商工會議所會頭談



吉田仁川商工會議所會頭는多年間仁川發展問題의 大小를不拘하고 猛運動을하여오든터인데 今回本報仁川支局紹介號發行에際하야 左와如한抱負를말하엿다

「挽近仁川은 東紡工場과林兼工場을筆頭로 諸工場이續續進出하야 市況이漸漸生氣를帶하며 오래동안懸案이든 産業道路、産業引込線의 布設을見하게되고 京仁道路改修도決定되엿스며 京仁一體論도具體化하야 京仁提携도要望함에至한港灣擴張도 將次決定되려하는機運에向하고잇다 果然仁川의生命은港灣擴張에잇다 大仁川을建設하야仁川을永遠히隆盛한 開港場또는都市다웁게하랴면 아즉도前途가遼遠하나 그러나目今十年後에竣工되어 一萬噸級의大船舶을 出入케할大築港을보게되는때는 人口도現在의二倍가될것이오 貿易額도二億圓以上 呑吐貨物도二百五十萬噸에達하게될것이다 이問題저問題를 생각하면 各種의要望事業이 逐次達成할사록 吾人은一日이라도安閑하게잇슬수업다 果然港灣의擴張이着手되면 吾人은更히大舊圓을繼續하야 朝鮮의産業特히工業을 日本內地와의同樣으로 勃興發達케하야 貿易貨物의增加를 圖하고 京仁一體가되어 朝鮮의中心貿易市場을맨들어 對滿對中은勿論 世界的貿易港을 맨들지안으면안될것이다 當商工會議所는今後一層其點을留意하야 財政이許하는範圍에서 工業調査와貿易調査를하야써 各種工場의誘致又는貿易業者를招致하야 外國貿易의開拓振興에 最大努力을加하고 更히十年後에는 第三港灣擴張의必要를 불으지질機運을促하려고 只今부터邁進하고잇다」云云(寫眞은吉田仁川商工會議所會頭)

七萬仁川府民의
代表格인
金允福氏



氏는舊韓國時代에 軍艦揚武號機關長으로 其後仁川港警務署長等의 官職을지내 當年六十有餘의老年으로 其職을辭하고 後十餘年間仁川七萬府民의 前衛隊가되어 府政으로부터 細民生活에至하기까지 無不干涉하야 一般民衆의幸福을圖하려하는遠大한抱負를가지고잇다 實로그의抱負대로 現在事業도多하거니와 그腹案은이로부터實施하려하는 途程을밟고잇다 氏는現在仁川府會議員 京畿道會議員 仁川府勢振興會副會長 仁川港灣期成會副會長 水産會副會長 仁川勸業所議長 仁川第二敎育部會議長 仁川佛敎振興會長 鷄友會仁川副支部長 仁川鷄林慈善會會長等重大한責任을지고 多方面으로도 獻身的勞

勸業機關一瞥

▲仁川商工會議所 ▲仁川物産客主組合 ▲仁川穀物協會 ▲朝取仁川支所 ▲仁川勸業所 ▲仁川穀物檢査所 ▲仁川華商總會

商工議所
創立後五十周年

仁川商工會議所는 大正四年朝鮮商業會議所令發表에 依하야同五年一月에 設立되엿다가昭和五年十一月二十五日朝鮮商工會議所令發表로更히仁川商工會議所라改稱하엿는데 그起源과沿革이二分되어잇스니 即一은仁川港朝鮮人商業會議所요 一은仁川日本人商業會議所이다 日本人商業會議所는 明治十八年에日本內地人居留民의 商工業發達과商工業에 關한 法規의制定改廢及施行에關한 意見의陳述 行政官廳의 諮問應答等日本內地商業會議所法에 準據하야創設되바로 朝鮮內에가장長久한歷史를가지고잇다 同所는米穀輸入稅撤廢、築港期成運動、鐵道運賃輕減、米穀檢査等모든方面의 先驅者가되어그目的을貫徹한바잇스며 朝鮮人商業會議所는 明治三十八年即韓國光武八年에設立되어 仁川港朝鮮人商工業機關으로서의 重要價値를有한바 大한功獻이잇섯든바인데 結局兩會議所의 合倂을보게되어 會舍及公會堂의建設、仁川築港、其他交通運輸의 諸施設及一般商工業의 改善發達等에 努力하야 그機能을發揮한바 적지아니하엿스며 本年九月二十九日에 創立五十周年記念祝賀式을盛大히 擧行하엿섯다

物産客主組合

同組合은 距今三十九年前인 舊韓國時代에 徐相彬、[illegible]、朴明珪外數氏의 發起로仁川 內外客主業者를 網羅하야仁川紳商會를 組織하고 一般商工業界의 改善發達을圖하야 相當한效果를 나타내엇섯나 然而其後會員中에서 名稱을變更하자는意見이잇서 會社라改稱하엿다가 法에抵觸됨이잇서 隆熙三年還原하야 其名稱을復活하고 [illegible]의 實施와 共히 會社란二字를 除하고 仁川客主團合所라改稱하고 規約의多少訂正을 하야 業務에 努力하여오든바 明治四十四年에 至하야 從來會員中에서 一般有志를除하고 純然한客主業者만으로서組織하야 同業者間의共益을圖하여왓섯다 그러나當時에는 [illegible] 商工業者의 共益上 一致團結이 아니나 다뭇업시努力하여오다가 大正六年七月에至하야仁川物産客主組合으로 更히名稱을改稱하고 仁川府區域內에營業場所를 有한物産委託販賣業者에限하야 組合員의資格을與하고 物産의 流通과 同業者間의取引上의 統制調査와 一層擴張하야仁川港移入米穀의 改善에 努力하야 仁川米商組合과穀物協會와 組織하야 仁川米의穀價를올리라고 眞般活躍을하여오든朝鮮人의 商工機關으로서의가장功獻이만흔 團體이다

仁川穀物協會

仁川穀物協會는明治四十二年에 日本內地人穀物貿易業者 三十餘名의 一致團結로서創立되어 穀米穀物市場制、穀物檢査制를 [illegible] 殷하야서 仁川穀物界의非常한 良績을나타내엇는데 今日仁川米의聲價를日本內地及海外에까지 놀라게한것은 同會努力의賜物이아니라하여도 過言이아니다

朝取仁川支店

朝鮮取引所仁川支店은明治三十二年六月에資本三萬圓으로米、大豆、石油、明太魚、紡績絲、金巾等의取引을開始하야 [illegible] 그金額이二萬餘圓에達하 [illegible] 好況을나타내엇스며 現在 [illegible] 左記와如하다

仁川勸業所

同所는仁川에在住하는 釜山人士를網羅하야組織한 仁川에서 가장長久한歷史를가진 仲介業者로서 仁川穀物界를爲하야 多大한便益을圖하여왓다 그淵源은 至今으로부터 五十四年前인濟物浦時代에 釜山으로부터 鷄林人이來住하야 明治十七年即甲午年에 [illegible] 明治二十四年에 [illegible] 名稱을變更하야 金[illegible]氏가 社長으로 交迭하야 事務를 掌理하여왓다 明治三十九年에至하야는 勸業社의名稱으로 [illegible] 社務를一層刷新하야米의仁川에서의 非常功蹟을나타내고 大正四年에勸業所로다시 名稱을變更하야 今日에至하엿는데 現所長은金福[illegible]氏로서同業者間의 便益과穀物取扱의使命을다하고잇다

鷄林慈善會

同會는 明治四十二年에故丁致國氏의發起로仁川貧民無料治療機關인 保健組合의後身으로 大正五年에府立仁川病院內에貧民無料施療所가附屬設置됨에 同組合은解散되고말엇다 丁致國氏는當時仁川警察署署長이엿든 金允福氏와協議한後그組合의資産을引繼하야 仁川朝鮮人慈善會를組織하려하야 財團法人으로 承字氏가後繼하야 同慈善會長에 就任하고 仁川勞働者의激增과 府民生活의窮乏化함에伴하야 從來의事業은仁川에 限하지아니하고 京畿道의一大機關으로 施設及는 築港問題를實現시키려하고잇다 (寫眞은 金允福氏)

祝仁川地方紹介版

仁川府內里 고무靴 都賣商 天恩商店 主 林慶桓

朝鮮取引所 米豆取引員組合

仁川山手町 太田忍

仁川府港町五丁目五 米雜穀商 三榮商會 電話九三六番 振替略三又八(三五)

仁川府花平里 邵城釀造場 主 趙[illegible] 電話九○七番

仁川府內里一八○ 設備完全 飮食精潔 中央旅館 主 金南一

仁川府內里 海陸物産委托貿易商 相仁商會 主 金仁鎬 電話長八七○番 電略(ソウ)又八

仁川府港町一丁目二番地 海物細物商 金相浩 電話五三○番

仁川華商總會

仁川組合銀行

仁川府海岸町 仁川米穀商組合 電話六九一番

고추가루 실고추 엿기름 仁川府新花里 製造元 天一製粉工場

京城電氣株式會社 仁川支店

森信汽船株式會社 專務取締役 金鍾燮

仁川信用組合 電話七一六番

仁川府內里二○九 綢緞 布木商 泰豊商會 電話八七二番

仁川府外里六 一松藥房 主 朴盛源

仁川府外里 勝昌號 主 [illegible]

朝鮮飮食一切 新京館 사리재(電話四五二番) 主 徐[illegible] 無[illegible]

仁川重鎭人物

實業界老將이오 活佛인 劉君星 氏

氏는 當年五十四歲의元江華出生으로 일즉이私塾에서漢文을修學하고 仁川開港間後에仁川에移住하야 明治二十四年四月부터同三十年까지 薪炭商을營爲하다가 同年九月부터木材商을經營하는一方으로 同三十五年부터 穀物米及精米業을經營하야今日에至하엿스며 昭和七年十一月부터 更一步를進하야 朝鮮取引所米豆部取引員의許可를어더 取引業을繼續하는等 多方面으로 活躍하는中인데氏는商業上道德과 信用이豐富하고慈善心이만흔 實厚長者로서

社會的으로나 實業的으로나 全仁川을代表할만한 人格者이다 實로近代人으로서 누구나할것업시自我를標榜하고 名利를貪하는바만코마는 氏의獨特한性格은一般府民으로서의 推薦하는公職에도 絕對謝絕하고 다만朝鮮人의 評議인 鶴林慈善會副會長의 椅子만은 辭하지안코 그事業을進展시키려고 萬般努力을하고잇다 氏는그뿐만아니라 仁川의敎育機關이不完全함을 또한遺憾으로생각하고 第一公立普通學校를增築할때의 多額의寄附를비롯하야 第二普通學校建設當時의 現金五千圓을率先寄附한바도잇스며 그外永化普通學校又는窮交貧民等의施惠는 實로不可勝數인데果然氏의名望은 仁川에뿐만아니라 他地方人事까지도 欽歎않을말지안는다 ◇寫眞은劉君星氏

朝鮮精米界의 覇王인 朱命基 氏

氏는米의仁川을 빗나게하엿다는것보다도 朝鮮米의聲價를올리려고 百折不屈의奮鬪를다하야朝鮮唯一의精米所를 市內柳町에設하야 爾來十個有餘의星霜을두고 日本內地의直移出을하여오는 仁川米界의覇權을占하엿슬뿐아니라 社會的으로도 偉大한功獻이잇는仁川社會의典型的人物이다 氏의過去三十年間活動한 經路와成功의由來를 紹介하면 元來京城人으로明治三十四年에 仁川에移住하야 些少한資金으로雜貨商을經營하다가 仁川의生命이라할수잇는米穀界로 方向을轉換하야前記의 精米業을經營하게된것인데 氏의信望이두터우니만큼 大正二年부터 仁川府鮮人商業會議所正議員의 當選을비롯하야 同八年에仁川商業會議所評議員 同副會頭同九年에仁川府學校評議員仁川府協議員等幾多의公職을지내고現仁川米穀商組合長、仁川金融組合監査役、仁川商工會議所特別評議員의重任을띄고잇다◇寫眞은朱命基氏

前途囑望되는 劉斗熙氏

氏는일즉이社會運動과勞働運動에熱中하든勇敢한鬪士로서猛働運動을하여오다가同事件으로六個星霜의鐵窓生活을마치고時代의要求에應하야 小規模의洋服店을經營하는 仁川商工界의第一步를進하고 잇는人物이다(寫眞은劉斗熙氏)

共益心이豐富한 結城確次 氏

氏는兵庫縣姬路市福中町이原籍으로 當年四十九歲의壯年으로서 그性格이快活하고도 義俠心 豐富하고 且包容性과公益心이多한人物로서 氏는大正六年에 仁川에渡航하야 鈴木商店에採用되어 그主人의支配下에서 一個年間店員生活의苦業을맛보아섯다 남의商店員으로서의 獨立生活을하려하는希望과期待는 누구나업슬바가아니지만 果然그의遠大한經綸은靑雲萬里에 大眼을擧하야世界的情勢와 經濟的大勢를살핀後一個有年만에 百年大計의구든決心을가지고 結城商店이란看板아레 貿易商을經營하게되엿다 氏의特殊한方針은元來彼我의差別을하지안는만큼 朝鮮人店員을多數採用하야 그들의前途를 잘引導하여왓스며그의商業도 日就月將하야不過幾年에仁川鹽界의 覇權을占한바되엿다 그後그商店은 世運의變遷과時代의要求에應하야 廢鎖하고 仁川鹽共同販賣組合을設立하야 同組合의理事로依然鹽業을繼續中인데 斯界의成功者임는勿論이어니와 그는社會的으로도 百錬老將이라할만한人格을가지고잇다 그는仁川沿岸貿易商組合長、中華代辦實業組合長으로 昭和六年七月萬寶山事件이突發하엿슬때에 直接間接으로援助에努力한바가만하엿스며多年間仁川府民의死活問題이엇든往年 京仁取合併反對運動이展開되엿슬때에 鄕土愛의熱情을다하야 奮鬪努力하엿든그記憶이아즉도 살아지지안헛다그리고今年南鮮地方의水害民을爲하야五百圓에達하는巨額을率先寄附한바도잇다(寫眞은結城氏)

米의仁川의 李興善氏

氏는元來 金浦人으로 七歲時에그父世喜딸아 仁川에移住한當年四十八歲의壯年으로 그性格이溫健寬著하고 商略과手腕이敏活한人物이다 少年時代로부터 商業에着眼하야 小規模의雜貨商을經營하다가 二十五歲되든때부터 穀物商으로方向을轉換하야 쌀에對한 豐富한經驗과知識을어든後 大正十四年度부터는 更一步를進하야仁與精米所를 設置하고大大的으로作米業을繼續하야 東京大阪等地로直移出을하여오며 朝鮮米의聲價를 올리려고專力을다하는仁川精米界에 異彩를加한前途有望한實業家인데 쌀의仁川이라고誇張하게된것은 同氏와如한産業家가 잇는까닭이다(寫眞은 李興善氏)

青年實業家 洪元杓氏

氏는濟州出生으로 大正二年度에 濟州公立農業學校를卒業한後光州農工銀行 濟州支店에就職되엿다가大正九年에農工銀行이殖銀에合併되자殖銀의南原、又는仁川支店으로數回轉勤되어前後十年間行員의生活을하엿섯다 氏의性格은活潑正確하고手腕이敏活할뿐아니라 商業에對한 豐富한智識과 經驗을가진前途有望한靑年으로 二十世紀活舞臺에올라 洋洋한그의압길을開拓하려고區區한行員사리를勇退한後 昭和七年度부터米友社를創立하고 地方으로부터米廻되는 米穀은精米所原料供給으로紹介하고 精米所로부터 加工한精白米는 一般貿易商에게紹介하는等 萬般活躍을하고잇다 信用은資本의母요 忠實은成功의良將이란 格言을如則한氏의信望은 날로놉하 開城、海州、京城其他各地와의穀物委托取扱이 顯著하게增加하야今年度委托賣買米穀이 四五萬石에達하야 仁川靑年實業界의先鋒이될만한 敏腕家이다 (寫眞은 洪元杓氏)

赤手成家한 事業家 崔炳熙 氏

氏는 咸北鏡城人으로明治三十九年에 赤手空拳으로仁川에移住하야 商産貿易이複雜한競爭裡에서 千辛萬苦를 맛보아가며時日을 費하다가大正五年에 穀貿易及運送業又는 穀物委托販賣業을 經營하엿스며昭和元年度부터는 金剛鐵工所를經營하바이엇나 氏는忠實하고도剛直하며 勇敢하고도寬厚한人格者로서 一時中國人과貿易家와도 當絶의遊를맷저 數萬의消費者에게 多大한稗益을준바잇스며또 經濟의知識이 豐富하고 社會의信望이多하야일즉이仁川商工會議所評議員으로 當選되여 그의抱負를發揮한바적지안엇다 同五年四月부터는鹽賣業爲買獨人으로 指定되어同年九月부터 仁川鹽共同販賣組合을 設立하야 今日에至하기까지 繼續中인데 그는한편으로 農村生活에 도한뜻이잇서 富川郡素砂面으로 住宅을移轉하야農業을힘쓰며 그곳面協議員과 素砂普通學校後援會長으로 當選되어 敎育行政에까지 만흔努力을하고잇다(寫眞은崔炳熙氏)

奉仕的硝子工場 金鳳祚氏

氏는仁川에서의오직하나인小規模의硝子工場을 建設하고三十名에不過한 職工과한가지勞資協調主義와奉仕的方針으로 四五年間을꾸준하게도 繼續하야步一步로仁川工産界에 曙光을비치고잇다 世界의工業은手工業時代로부터 漸次趨移하야모든科學의發達과 機械의成長을딸아小規模의機械는 手工業을바차고大規模의 機械는小規模의工場을壓迫하야 大量生産을하는同時에 大資本은小資本을征服하다못하야 結局은國際的經濟戰爭을일으키어 國際市場에『덤핑』까지하게된 今日이것마는氏는얼마아니되는 資金으로『精神一到何事不成』이라는구든 決心알래持久戰을 繼續하여옴으로同氏의 奉仕的方針을잘理解하는仁川社會의 同情은勿論이오京畿、黃海、忠南其他各地의 注文이逕至하며 滿洲國에까지販路를開拓함에 至하야商圈擴張에가진活躍을 다하든同硝子工場는그注文酬應에 도리혀製造能率의不及을 感케됨으로氏는更一步를 進하야大大的으로 事業을擴張할計畫을 가지고잇다 (寫眞은金鳳祚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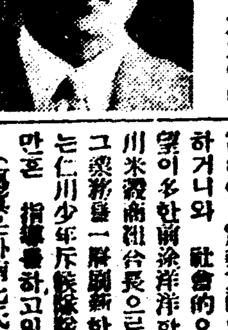
司法代書人 志賀輝夫氏

氏는十六年間京城地方法院에勤務하다가 今般司法代書業의認可를어더仁川府外里一八三番地에事務所를두고 許元石練儒氏를招請하야 府內對外의活動을하는中이다

水産界功勞者 鄭興澤氏

氏는明治二十三年에現在內里公設魚市場附近에 小規模의店舖를開設하고仁川近海漁業者의漁獲物을買入又는 委托販賣를하여오든바 時代의變遷에딸아 人口가漸增되고 京城이接近된關係로 漸次鮮魚의需要를喚起함에至하엿다 그러나沿岸漁民은資力이업고도撈獲方이甚히劫稚하야供給不足을告하게됨으로 氏는近海漁業者의資金融通又는漁船、漁網、漁具等을貸與하고 撈法改良을指導한結果 沿岸一帶의漁業이殷盛하야 生産額이逐年增加하엿섯나 그래서現公設魚市場場所에 小賣店舖小賣市場을 開設하엿든바인데 同市場은 昭和五年度부터府의公(設一)般市場으로됨에딸아 分離되고 氏는水産物委托販賣業만을 營爲하야今日에至하엿섯다 本年度부터는 府의經營方針을變更하야中賣市場乙賣川場을 設置하엿스나 氏는約五十年이나仁川水産物界에功蹟을나타내엿든 市場의主力者가되여從來와가튼 委托販賣業을繼續하기로되엿다

穀物貿易商 金元國氏



氏의性格은忍耐力이多하고商略과手腕이優越한 仁川穀物貿易界의信望家로서 十數年前부터仁川海岸通에서新華商會란看板아래에些少한資金으로꾸준하게 穀物貿易兼委托販賣業을繼續하여왓다 氏의信用은날로놉하지고商圈은漸次擴張되어滿洲로부터의特産物及雜穀의購入과 白米、大豆、碎米及米糠菜物等의日本內地移出을하야 米의仁川에서의相當한地盤을가지고잇다 果然氏는十個有餘의星霜을두고 勤勉努力으로서 慎重히하는結果安全、商業銀行에서도多大한援助이잇서將來仁川商工界의重鎭이될만한 素質을가지고잇다 (寫眞은金元國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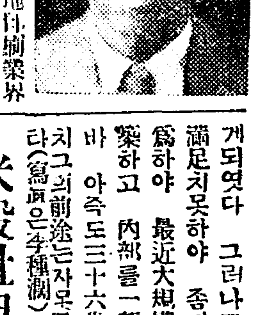
朝鮮에有數한 鑛業家 文章伯 氏

氏는일즉이 京城培材學堂과京城商業簿記專修學校를 卒業한後 大正六年부터約十個年間米穀貿易及布木商을 經營하다가 昭和元年度부터는 大鐘商事合資會社支配人으로 斯界의發展을爲하야 만흔活躍을하엿스며同六年度부터는 鑛業界에進出하야 黃金의朝鮮을活舞臺로삼고産金事業을하게된 仁川의唯一한鑛業家이다 그의所有鑛區는二十餘個所이며 現在作業鑛區는 忠南天安郡稷山面合成鑛其他數個所인데 氏는往訪記者에게對하야 左記와如한抱負를말하엿다 「朝鮮의産金事業은 아즉도科學的技術의習과資本의힘이缺如되여關係로 幼稚한感이업지안습니다 그러나其實發達의度가急激化하엿슴은 黃金의朝鮮이아니고는 보지못할趨勢입니다 勿論驚異的現象은金輸出再禁止로因한 對外爲替의下落으로 金時價가騰貴되어 俄然히朝鮮産金界에非常한努力과發展을보게된것이事實原因이겟습니다마는 朝鮮의地下는果然無盡藏의寶庫라하여도過言이아닙니다 이러한臺灣한 惠澤이有한朝鮮에잇서서 아즉도鑛業에對한 一般의事業的認識이不足한것은 무엇보다도遺憾으로生覺하는바이며 딸아서現下朝鮮鑛業家로서의 一層萬全의科學的洪步를應用又는加工하야 鑛業朝鮮의將來를 빗나게할이잇기를바라는同時에 微力이나마 암흐로計畫的또는實際的硏究와努力을期할가합니다」云云(寫眞은 文章伯氏)

布木商界巨星 李珪鉦氏

氏는元開城人으로 大正六年에仁川에移居하야 綢緞布木商을經營하는 仁川布木商組合長으로 斯界의覇權을占하엿스며 豐商會를經營하는 仁川商工會議所評議員으로數次當選되어 仁川商工界에 만흔活躍을 하는人物이다 氏의 性格은確乎不拔하야有始無終하는 일이업스며 우리의商權을他人에게 빼앗기지아니하려하는 구든決心을가지고잇다

印刷業界의 重鎭 李鍾潤 氏



氏는靑年實業家로當地印刷業界의中樞人物이다 九歲에그父親을일코普通敎育을마친後上級學校에入學하려하엿스나 家貧한關係로타올으는向學心을抑制하고어린工場生活에몸을던지게되엿다 氏는그때부터工場生活을하면서 夜學又는先輩의指導를바터 事業을目修하여왓스나 그러나 그것만으로는前途를 拓키難할것을自覺하고 大阪某印刷工場에서 印刷科에學籍을두게되엿다 家族生活의全責任을가진그는學資는姑捨하고 家族의生活이 一大難問이엇스니 氏의苦難은果然어떠하엿스랴 때로는自抛自棄할極度의悲觀도업지안엇스나 千艱萬難을除排하고隱忍自重하야 勇往無退하야結果大正十四年에 所期의業을마치고仁川에돌아와 興業함에至하엿스니 此가即印刷所鮮英舍이다 開業初의資기업슴것은 事實이엇것만은刻苦勤勉十年後今日은그레도남못그럽지안흔 工場을갓게되엿다 그러나그것만으로서 滿足치못하야 좀더大成을하기爲하야 最近大規模의工場을建築하고 內部를一新擴張하엿는바 아즉도三十六歲의少壯인만치그의前途는자못促望되는바이다(寫眞은李鍾潤)

米穀社組合長 朴南七氏

지금으로부터三十年前 黎明時代부터朝鮮民族을爲하야全財産을기우려宗敎事業과 敎育事業其他各方面을 通하야 獻身的努力을다하든 故朴三洪氏의偉大한 功蹟은仁川人士로서아즉도 記憶이살아시지안엇다 龍生龍 虎生虎란格言과如히 그後裔인朴南七氏가또한仁川社會에만흔囑望을가지고잇다 氏는 當年三十三歲의 靑年으로己未運動이일어날때에 仁川公立商業學校在學中退學을當하고 京城共同貿易株式會社店員으로 三個年間勤務하는한편으로勞働靑年會英語科를 修了한後 仁川에 돌아와서 十餘年前부터 松茂精米所를 經營하는中인데 그의 性格은共益心이豐富하야 實業方面의 信用도多大하거니와 社會的으로도또한信望이多한前途洋洋한靑年으로仁川米穀商組合長으로 推戴되여 그業務를一層刷新한바잇스며또는仁川少年斥候隊隊長으로서의 만흔 指導를하고잇다 (寫眞은朴南七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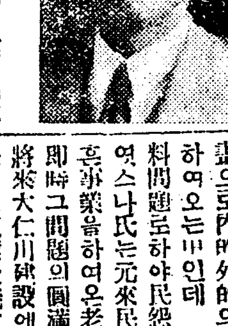
客組中興祖 洪在範氏

氏는本是仁川生으로 鶴林間이오 仁川物産客主組合長으로서 社會的功獻이만코 民族的愛着心이만흔 富厚長者의 德望家이며 老年活動家이라 그는民衆的으로나 實業方面으로나만흔期待를주고잇는 人格者인만큼 大正十三年부터 前記組合長으로推戴되어今日에至하엿스나 一時經營難에 빠저잇든그組合의 中興祖라하여도 過言이아니며 現會를 爲하야 勇進無過하는 一老靑年이라할수잇다(寫眞은 洪在範氏)

社會的中堅 河相勳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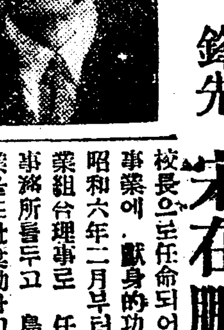
氏는 當年四十七歲의 壯年으로서 그性格이 快潤하고義俠心이만흔 非常憤慨의 鬪士로일즉이靑年界를 爲하야 만흔功績을나타내엇스며 前日新幹會仁川支會長으로 民族的事業을하든 本社仁川支局顧問이오仁川物産客主組合副組合長인 仁川社會의 中堅人物이다 (寫眞은 河相勳氏)

今後大企業家로 期待되는 金致洙 氏



氏는 當年四十七歲의慶南出生으로 일즉이幾多의公職을띄고으로 多大한活躍을 하는한편으로實業戰線에서 싸우다가 土湖經營事業에 着手하게되어 그의鄕土를떠나 仁川에移住하게되엿다 氏는 某資閥家와共同經營으로 市內松林、松峴一帶에잇는 數萬坪의土地를大工場地帶로 形成하려고道路新設、海面埋立等자못 遠大한計畫으로內外的의各方面活動을하여오는中인데 一時그곳의地料問題로하야民怨이업지아니하엿스나氏는元來民衆을爲하야만흔事業을하여온老鍊志士인만큼 即時그問題의圓滿解決을시키고 將來大仁川建設에 어떠한役割을하려고適應한機會를期待하고잇다 實로氏의모든 畫策과抱負가實現되는때에는 그곳貧民들에게만흔 稗益을주게될뿐아니라 仁川에莫大한 公益이될것임으로大企業家인氏를마지하게된仁川으로서는氏의腹案이實現되기를 衷心으로 冀望하는바이며 미리부터긔버함을말지안는바이다 (寫眞은金致洙氏)

島嶼開發의 鋒先 宋在鵬氏



氏는富川郡 德積面出生으로大正四年에仁川公立商業學校를마치고當時平壤 農工銀行에就職하야 辛苦를맛보든後同十一年부터는 敎育界로方向을轉換하야 平壤私立光成普校와 仁川永化普校의敎鞭生活을하다가 同十四年에至하야는그의故鄕으로돌아가서 德積面面長又는 同面私立明德學校長으로任命되어 行政과敎育事業에 獻身的功勞를나타내고 昭和六年二月부터는 德積面漁業組合理事로 任命되어仁川에 事務所를두고 島民의生命인漁業을또한獎勵하고잇다 氏의性格은 溫良恭謙하고慈悲心이또한豐富하야 貧民救濟事業에도 熱情을다하여가나와 그地方發展을圖하기爲하야 德積島의定期航路를開始하야 便益을圖하며 面民을指導하야 現社會의 落伍가되지안토록 모든方面으로奮鬪努力을하여왓다 實로氏의名望은富川郡에뿐만아니라仁川에일으기까지赫赫하야一般社會의囑望되는前途洋洋한人格者이다(寫眞은 宋在鵬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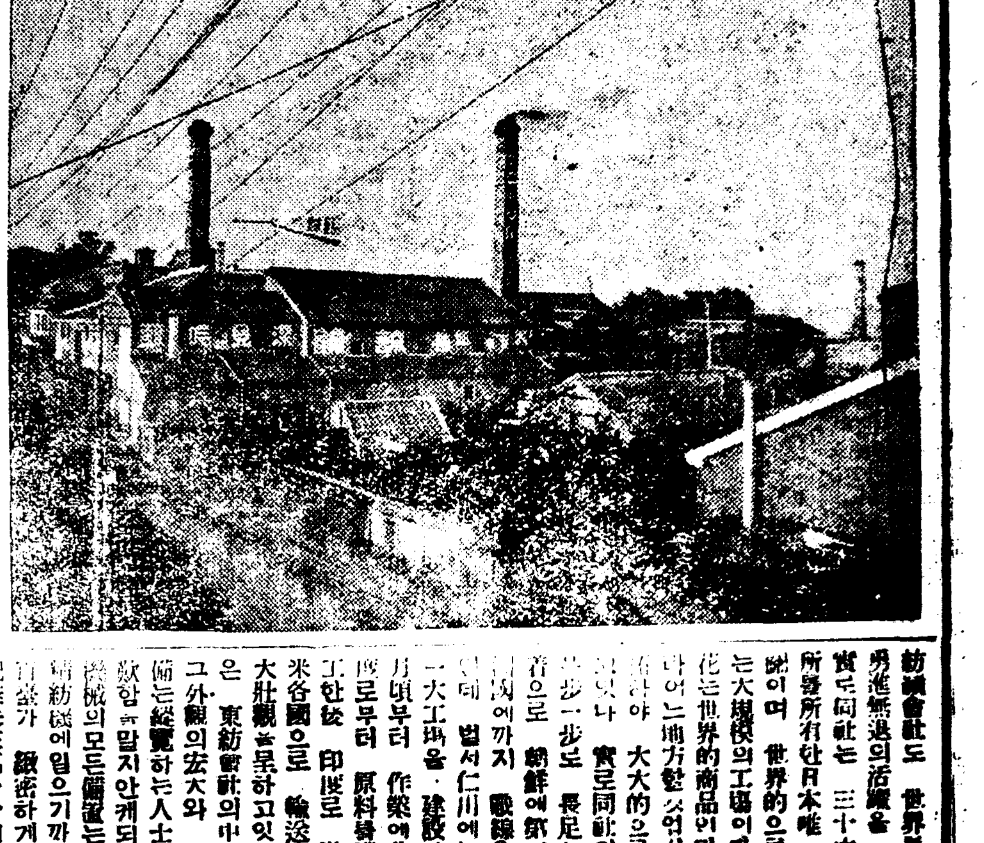
社會的熱誠家 朴英涉氏

氏는忠南禮山郡出生으로 大正十年度부터昭和五年까지官廳生活을하다가勇退한後社會事業에出馬하야仁川貧民의便益을爲하는公設浴場을 經營하며仁川町里總代聯合會副會長으로 府勢振興及慈善事業等모든方面으로活躍하는前途有望한人物이다

化學을應用하는 理想酒의"誠鶴" 深見釀造場의特色

誠鶴釀造元深見釀造場는年年釀造高가增加하야 昭和八年의實際查定高二、五〇〇石을釀造하얏 그名聲이全鮮에冠하엿슴은 該工場이他에比하야優越한所以이다 實로그工場은最新의施設로『コルニシユ』式『ボイラ』二基를備하야써蒸米設備는勿論暖房炊事動力에活用하고또五馬力의冷動機로써 百十坪의冷藏庫를盛夏에도華氏의五十五度까지 冷却하야一、二〇〇石을貯藏하게되엿스니 朝鮮에서의第一最新의施設이라할수잇다 本年의釀造高는三千石을突破하려는盛況을 呈하야北으로滿으로 販路는侵侵히末廣과如히擴張되어잇다 該工場의器械器具의改良에多大한犧牲을하여가며品質의 改良과共히漸進的釀造高를增加하게되엿것은 堅實한證據이며 誠鶴은目下冷藏酒를標語로하야 化學을應用한 理想酒로바此는 冷藏酒誠鶴는愛飮家의人氣中心이될것이다 (寫眞은深見釀造場)

朝鮮唯一의 仁川大東燒酒 大東藥酒도優良



當地의元老有志 崔承宇氏의經營인大東釀造組合은 大正十四年十月에 某某資閥을 擴羅한組織으로開業하엿스나 一時業務不振으로 其他組合員은脫退하고氏의單獨으로 今日에까지維持하여와다 氏는勇進無退하는性格을 固有한 相當한人格者로서 일즉이物産客主業을營爲하면서 客主組合長과當時朝鮮人商業會議所會頭、信用組合長으로 仁川商工界를爲하야만흔功蹟을 나타내엇슬뿐아니라仁川府協議員又는 朝鮮人慈善會長으로 府政의干與와貧民救濟에까지 全責任을다하여오다가 現在는如上의榮職을謝하고다만漸次衰退하는 朝鮮酒類界를爲하야 仁川麯子組合長으로서의 麯子改良에 힘을쓸뿐 아니라그의 經營하는釀造業을 擴張하고 改良에改良을加한結果兩米京畿道又는全朝鮮酒類品評會를開催할때마다 幾多의褒彰又는優等賞授與의榮冠을帶하게되엿스니 此가朝鮮唯一의大東燒酒이며또 大東藥酒이다 氏의百折不屈하는 一方으로는支配人 丁大實氏의 醸造에對한技術과 手腕으로京仁兩地에數多의支店을두고 京畿、黃海、忠淸南北道에까지 販路를擴張하엿슴으로 同組合은朝鮮釀造界의囑望되는바라다 (寫眞은大東釀造組合工場)

世界的大機業 東紡仁川工場 勞働者의生命線

世界的經濟戰爭은 生産過剩으로法合機烈化하야 再分割에再分割을거듭하며 國際的消費市場을開拓하고 關稅의障壁을突破하야 各目의大量生産品을消化하려고하는今日인만큼 東洋紡績會社도 世界를相對로하야勇進無退의活躍을 加하고잇다 實로同社는 三十六個所의分布所를所有한日本唯一의 工業機關이며 世界的으로도遜色이업는大規模의工場이다 더구나棉花는世界的商品인만큼 어느나라어느地方할것업시 販路를開拓하야 大大的으로輸移出을하고잇나 實로同社의遠大한方針은步一步로 長足을進하야第二着으로 朝鮮에第三着으로는滿洲國에까지 戰線을延長할計畫이라한다 벌서仁川에는 萬餘坪의一大工場을 建設하고 本年六月頃부터 作業에着手하야 印度로부터 原料를購入하야 加工한後 印度로 逆輸出又는 歐米各國으로 輸送하는等 實로大壯觀을呈하고잇다 그工場은 東紡會社의中程度의施設로 그外觀의宏大와 內部의모든設備는縱覽하는人士로하야곰 驚歎함을말지안케되어잇스며 그機械의모든備置는繰返機로부터 精紡機에일으기까지의 一千五百臺가 緻密하게도整列되고支配錘는三萬一千四百八十八個에 達하야 一日生産高가 廣木類三千反으로 每日仁川에떠러지는돈이約三萬圓에近하며그工場에 從業하는職工은敎授職工(女)百五十名(男)百名을비롯하야見習職工(女)一千名(男)二百五十名合計一千五百名이됨으로 仁川貧民層에非常한 稗益을주게되엿다 同工場을總轄하는工場長須知元直氏는東京工科大學出身으로東紡本社에서 二十餘星霜이나 勤續하든斯界의模範的人物로서그의老練한技術과 抱負를이로부터 發揮하야써그工場의發展은勿論仁川의繁榮을圖할 腹案임으로 仁川七萬府民은仁川勞働界의 生命線이라할수잇는同社의進展을期待하는바이며 딸아서 欣喜함을말지안는바이다 (寫眞은工場長須知元直氏와 東紡仁川分工場의全景)

島嶼의開發隊 通運丸兄弟誕生

富川通運組合은 富川郡永宗、龍游、北島、靈興、大阜、德積等六島面長의發起로 創立한後大阜面長金完洙氏는 組合長의任에當하고 富川郡守許燮氏와永井仁川府尹、岸川仁川警察署長은 顧問으로推戴되어方今萬般活躍을하는中인데 實로同組合創立의主的趣旨는 島嶼交通의便益을與함은 勿論、方開發과産業發展을 圖하려함에잇다 從來는 交通이甚히 不便하야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又는敎育的으로의모든 文化의恩澤을입지못하야 그들의民度가文化의都市보다 十年以上의落伍가되여잇다하여도 過言이아닐만큼幼稚域에잇슴으로 此를遺憾으로생각하는 許郡守와六面面長은 同意一擧에總資金二萬五千圓 總股金一千股 (每股二十五圓) 拂込은 二回로하기로되여 第一回拂込을마친後 一萬八千五百圓의 工費를投하야 京畿道知事로부터 命名한第一通運丸 第二通運丸二隻을 購入하야 仁川 馬山 德積 外浦等運航線路를 開拓함에至하엿다

仁川護謨製造界 先驅者 安基榮氏

氏는本來京城人으로도 그性格이明確하고 頭腦가明晳한前途有望한靑年이다 大正十一年五月頃에 赤手空拳이나다름업시小規模의雜貨商을經營하는바 때마츰朝鮮에護謨靴가流行됨을窺하고 神戶護謨會社와特約을한편으로 更一步를하야 東京、大阪、神戶等地로부터 自轉車等이야니의 大量購入을하야 中國山東省으로輸出하는等 가진商略을다한結果 不過數年에巨商大賈의 稱號를밧게되엿다 氏는經營에만 着眼할뿐아니라 慈善心이또한豐富하야 仁川、富川兩府郡을通하야 貧民千餘名에게 救恤한活佛의功을나타내엇든일도잇섯스며 昭和七年度부터는 總資金六萬圓으로 仁川護謨工業社를組織하고 年六十萬足의護謨靴를製造하야 朝鮮的으로販路를開拓하고 大大的活躍을하는中인데 仁川工産界에서는 同氏의事業에만흔期待를가지고잇스며 職工의賃金으로 年一萬五千圓이라한다 (寫眞은 仁川護謨工業社와社長安基榮氏)

兪金兩氏活躍과 森信汽船曙光

江華島를건너서서 누가獨學家이며 누가民衆과敎育界를爲하야獻身的努力을하느냐고 물을때에는 兪炳植氏라고應答하지안흘수업슬것이다 氏는일즉이航海業에着眼하야大正七年에森信商會를設立하고 江華、仁川延安間의航路를開始하야 朝鮮사람으로서의 오직하나인航海事業을하여오든中大正十四年度에靑年敏腕家金鍾燮氏와 握手하게되엿다 同金氏는仁川府會議員으로一般府民과商工界를爲하야 活動하는 當年三十七歲의新進有望한人格者로서 그商會의支配人으로就任되엿든데 兪金兩氏는更一步를進하야 昭和二年四月부터는 總資金二十萬圓으로 森信汽船株式會社를 創立하고 金氏는社長의任에兪氏는專務取締役의任에當하야 汽船七隻을購入한後仁川으로부터 永宗、延安、牙山에까지航路를擴張하야 每日航行中인데同會社는兩氏의活躍과相俟하야 前途曙光을비치고잇다 (寫眞은金鍾燮氏)